

한인뉴스

Korean News(Monthly Bulletin of Korean Association)
haninnews123@gmail.com



2010·3

통권165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홈페이지(www.innekorean.or.id)에 방문하시면 2006년도 부터의 한인뉴스 과월호를 다운로드 받아서 책자와 같은 모양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발행 :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MESSAGING NOW COMES TO LIFE

한글 메뉴 및
SMS



LG GW300

www.lgmobile.com



LG

Life's Good



- QWERTY Keypad • Live Square™
- SMS Chatting • 2.4" Wide Screen

JOIN THE TOUCH GENERATION

한글 메뉴 및
SMS

ARENA



KM900

- S-Class UI • 5MP Camera
- Wi-Fi • Dolby Mobile Sound

한글 메뉴 및
SMS

Renoir



KC910

- 5MP Camera • 3.5G/HSDPA
- 120 fps Video Recording

한글 메뉴 및
SMS

Cookie



KP500

- 3" Full Touch Screen
- Active Flash UI • Accelerometer

CIC
LG CUSTOMER INFORMATION CENTER
Layanan 365 hari
Jakarta : (021) 721-99777
Surabaya : (031) 549-0777

LG MOBILE SHOWROOM & SERVICE CENTER

Jakarta : • ITC Roxy Mas, Tel. (021) 63866287 • Mall Taman Angrek, Tel. (021) 5639082 • ITC Cempaka Mas, Tel. (021) 42901978-79 • Mall Senayan City, Tel. (021) 72781540 • Mall Ambassador, Tel. (021) 57939654
57933590 • Pacific Place Mall, Tel. (021) 57973044-55 • ITC Farmawan, Tel. (021) 91250046 • Grand Indonesia, Tel. (021) 23580652 • Mall Kelapa Gading 3, Tel. (021) 4507970
Tangerang: Supernal Karawaci, Tel. (021) 5473437
Bogor: Borani Square, Tel. (0251) 8400674

LG MOBILE MASTER DEALERS

Jakarta : • Felixindo • Indokom • Dunia Phone • Star Cell

LG MOBILE PARTNERS

Jakarta : • Andrew Cell, Tel. (021) 63858857 • SMS Shop, Tel. (021) 63858751 • Pancatama, Tel. (021) 63858780 • H2, Tel. (021) 6304815 • Felixindo, Tel. (021) 42880810 • Sacho Cell, Tel. (021) 5762528 • SG Cell, Tel. (021) 68566626 • Mlenia, Tel. (021) 66601515, (021) 66603128 • Dunia Phone, Tel. (021) 63860678
Cibinong : Central Communication, Tel. (021) 87920335
Bekasi : Dewata, Tel. (021) 89855178
Bogor : Centralindo, Tel. (0251) 8345456 • Taguh Cellular, Tel. (0251) 8322153

LG MOBILE ORIGINAL ACCESSORIES

Original Room, Tel. (021) 30010333, (021) 9852221, www.originalroom.com

우리를 날아 오르게 하는 힘



자체의 무게만해도 수백 톤에 달하는 비행기. 몇 백 명의 사람까지 태우고도 비행기는 하늘 위를 가볍게 날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한항공이 올해 도입하는 세상에서 가장 큰 여객기, A380의 최대 이륙중량은 560톤, 연료는 260,000 리터, 비행기 무게는 277톤입니다. 이토록 무거운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 오를 수 있는 힘의 원리와 근원은 무엇일까요?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 것은 네 가지의 힘-양력, 추력, 중력, 항력이 서로 상호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양력 (揚力 Lift)

비행기가 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힘 항공기가 지구의 중력(重力 weight)을 이겨내고 위로 뜰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날개의 아랫면은 대체로 편평한 반면, 윗면은 약간의 곡면을 이루고 있습니다. 공기가 이와 같은 날개 단면을 흐를 때 윗면의 흐름속도가 아랫면보다 빨라지므로, 아랫면에 작용하는 압력이 윗면보다 상대적으로 높아져 결국 위로 떠받치는 힘, 즉 양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추력 (推力 Thrust)

비행기에 달린 엔진에 의해 앞으로 나아가는 힘 제트 엔진에 의해서 뒤로 밀리는 공기가 기체에 대한 반작용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소비되는 연료의 양으로 추력의 크기를 조절합니다. 비행기가 전진하는데 방해가 되는 힘을 항력(抗力 Drag)이라고 하는데 이륙할 때는 추력이 항력보다 크고, 공중에서 일정한 속도로 비행을 할 때는 추력과 항력의 힘이 같게 됩니다.

중력 (重力 Weight)

지구가 비행기를 당기는 힘 양력과 반대되는 힘입니다. 즉 양력이 중력보다 크면 비행기는 상승하고, 양력이 중력과 같을 때는 일정한 고도로 비행하는 것입니다.

항력 (抗力 Drag)

항력은 물체가 이동 시에 항공역학상에서 앞으로 가는 움직임의 방향과 반대로 작용하는 힘을 말합니다. 따라서 항력은 물체의 움직임을 막는 힘으로 동력기의 경우 추력에 의해 극복될 수 있습니다.

엔진 (Engine)

무게가 몇 백 톤에 달하는 비행기를 추진시키려면 엄청난 엔진이 필요합니다. 보통 자동차 엔진 부피수가 견고한데 비해 비행기 제트엔진은 100만개이상의 부품으로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엔진 한 대의 비용은 비행기 가격의 3분의 1에 달하기도 합니다.



고객 (Passengers)

지금까지 비행기가 하늘을 날 수 있는 원리와 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반적인 비행기라면 이러한 힘의 적용만으로도 가능한 일이지만 그것이 대한항공의 경우라면 다릅니다. 그렇다면 대한항공을 날아오르게 하는 가장 중요한 힘의 요소에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2007~2009 아시아 최고 항공사

- Business Traveller

2009 최고의 항공 브랜드 대상

- Travel & Leisure

2009 최고 비즈니스클래스 좌석 디자인

- Global Traveler

2009 최고 공항직원 서비스

- Global Traveler

2009 최고 가내 서비스

- World Traveller

2006~2009 최고 화물운송 항공사 Top 10

- CAAS

2009 올해의 북아시아 항공사

- TTT Asia

2009 아시아지역 최고의 가내서비스 항공사

- PAX International

대한항공을 날아오르게 하는 가장 큰 힘은 비행의 원리나 엔진이 아닌 고객 한 분 한 분의 만족과 미소, 그리고 사랑입니다. 대한항공은 2009년에도 이미 수많은 수상과 찬사로 그 엄청난 힘을 세계 속에 널리 증명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한항공은 그 큰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는 명품 글로벌 항공사가 되겠습니다.



2010년, 고객의 사랑으로 더 높이 날아 오르게 됩니다.

교민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 하나은행!

최고의 금융 서비스로 교민 여러분을 모십니다.

하나, 이젠 대출도 하나은행과 의논하세요!

- 기업운전자금 / 시설자금 대출 (루피아, USD)
- 수출입, 무역금융 서비스
- 공장 / 아파트 구입자금 대출
- 매출채권 담보 팩토링 대출

둘, 기분 좋은 개인고객 서비스

- 17개의 넓은 지점망과 고금리 루피아 예금
- 최저 수수료의 외화 송금 서비스 (한국 하나은행으로 송금시 해외수수료 20불 면제)

3월 1일 수라바야 지점 개점!

상담 전화: 021)522-0222

홈페이지: www.hanabank.co.id

Gedung Mitra, Jl. Gatot Subroto Kav 21



Hana Bank



PT. BOSUNG INDONESIA

KS A 9001 : 2001/ISO 9001 : 2000 - KS A 14001 : 2004/ISO : 2004

- CORRUGATED
- CARTON BOX
- INNER BOX
- SHOPPING BAG
- OFFSET PRINTING



Jl. Raya Rajeg, Desa Sindangsari, Kecamatan Pasar Kemis Tangerang 15560 Banten - Indonesia
E-Mail : shopping@bosung.co.id sales@bosung.co.id Tel. : (021) 5935 1001(Hunting)
Fax. : (021) 5935 0022 (Shopping Bag) - (021) 5935 0066 (Inner Box) - (021) 5935 0033 (Carton Box)



PT. TAEWON INDONESIA

ISO 9001: 2000 / ISO 14001 : 2004

- CORRUGATED
- CARTON BOX
- INNER BOX
- OFFSET PRINTING



Jl. Raya Industri Selatan 1, Blok LL-6 Kws. Industri Jababeka II Cikarang Bekasi 17550
E-mail : sales@taewon.co.id Tel. : (021) 8948 - 1234 Fax No : (021) 8984 - 1133/1134

2010년도 부인회 취미활동반 프로그램 안내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보람된 생활을 위하여 2010년도 취미활동반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습니다.
신설된 반들도 있으니 많이 참여하셔서 건강하고 알찬 인도네시아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운영교실	일시	강사	기간	장소	연락처
플 롯	월요일 10:00-11:30	유은영	현재 활동중	부인회 사무실	769-2166 0812-924-1860
서 예	목요일 09:00-12:00	손인식	현재 활동중	부인회 사무실	739-7153 0815-936-9114
컴퓨터 (신설반)	토요일 10:30 - 12:00 13:00 - 14:30	전문강사	현재모집중	STC Senayan 4층 네일 갤러리	0812-8802-5799
유화반	금요일 10:00-12:30	전문강사	현재활동중	부인회 사무실	0818-916-566
네일아트 (신설반)	화요일 10:30-12:00	강봉주	현재모집중	STC Senayan 4층 네일 갤러리	0856-9192-5376
	목요일 10:30-12:00	강봉주	현재모집중		0811-990-684

부인회 연락처 (신청 및 문의) : 총 무: 박성영 0816-160-5911 류경희 0817-155-864

부인회 주최 <노래 한마당> 대회 안내

일시

- 1) 예선 : 3월 29일(월) 10:00 / 장소: 세노빠띠 아랑22, 2층 레드토마토
- 2) 본선 : 4월 26일(월) 10:00 / 장소: 리츠 칼튼 호텔(부인회 총회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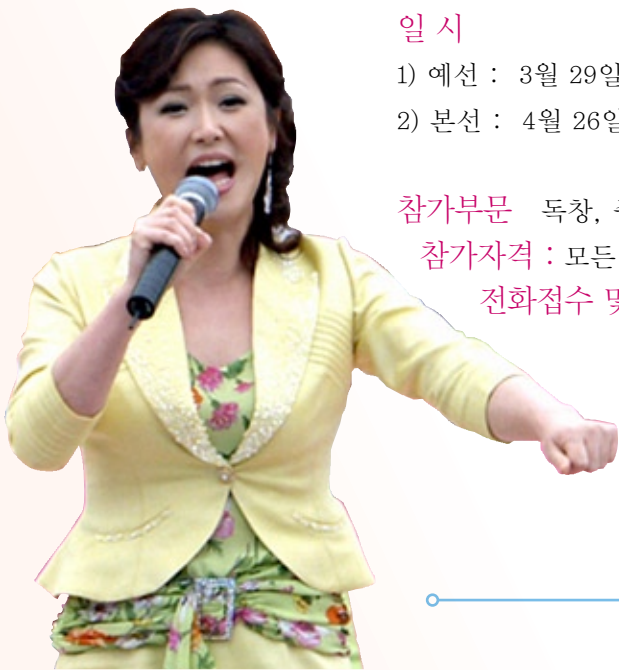
참가부문 독창, 중창 등 자유, 선곡도 자유

참가자격 : 모든 부인회 회원 (한국 성인 여성및, 한국인 남성의 배우자)

전화접수 및 문의: 오영란 0815 1149 1004, 양순금 0815 181 3793

푸짐한 상품이 마련되어 있으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재인도네시아한국부인회 회장 홍 미 숙



HYUNDAI TRUCK & BUS



KotyBus
KORINDO MOTORS

Berjelajah Seru Bersama Koty !



**HD MIGHTY
TRUCK**

125PS
TURBO - CHARGED INTERCOOLER
EURO II

 **KORINDO MOTORS**

CONTACT : (021) 596-0445



인도네시아 한인회보

한인뉴스

창간 1996년 7월 15일

발행처: 인도네시아 한인회

발행인: 승은호

편집인: 조규철

편집위원:

김재민, 김은미, 최양기, 정무송, 김영민

전화: (021) 521-2515, 527-2054

팩스: (021) 526-8444

주소: Jl.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이메일: haninnews123@gmail.com

웹사이트: <http://www.innekorean.or.id>

웹사이트에서 과월호 한인뉴스를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30



35



49



62

10 한인사회 소식

- 장윤정 콘서트, 교민등 성원으로 성황리 치러져
- 불이 오는 소리를 느껴보세요
한인음악협회, 창립 10주년 기념콘서트 개최
- 찌뜨라 라야 지역 다문화 가정 한인2세 위한 "무지개 공부방" 개소
- 무궁화 유등 창립 30주년 기념식 개최
- KOICA, 카리안담-세르퐁간 도수로 및 정수장건설 사업등에 150만불 지원
- 동서발전, 인도네시아 석탄 발전소 진출
석탄 발전소 건설 및 30년 운영권 MOU 체결
- 코린도 장학재단, 인니 유학생 지원
- 마음수련 창시자 우명선생 초청 공개 강좌 개최
- 하나은행, 수라바야 지점 개점.

22 건강칼럼 **땡글땡글 보랏빛깔 젊음의 과일 Anggur**

24 화제 前문화홍보관 윤문한, 김상술씨 인도네시아 입문서 펴내...

26 시사포커스 20 **도마뱀과 악어, 그리고 들소**

30 김신의 알고싶은 컴퓨터 이야기 **忍터넷**

33 명창 박노웅선생 초청 **판소리 자선 순회 공연**

34 KOWIN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에서 **알려드립니다**

35 인도네시아 문화를 찾아서 인도네시아의 일곱 빛깔 무지개

38 인터뷰 인도네시아 한국차의 미래는?

40 **개정 국적법의 진실과 오해**

41 재외동포(F-4) 비자 발급 안내

42 **평통광장**

45 **행복한아이만들기프로젝트** **행복한 아이의 비밀 4-귀 기울이기**

48 김은미 편집위원의 추천 도서 **행복의 조건**

49 **별과 달이 비추는 오지의 마을** **평안난 사람들**

51 **공지 사기 이메일 급증, 주의하세요!** **한인미술협회 신입회원 모집**

52 유춘강의 긍정칼럼 **다한끗 차이**

55 **드라마에서 떠올린 바하사~**

58 **와칭코리아** 이명박 대통령의 다보스 포럼 특별연설의 의미와 성과
이명박 정부 출범 2주년 외교 성과와 과제

62 **클래식 음악 애호가들을 위한 전당** **Aula Simfonia Jakarta**

64 **문화회관 안내**

65 **인도네시아 법률 해설** **토지(부동산)법**

68 **BOOKS**

70 **MOVIES**

71 **생활정보 가이드**

76 **3월 공지사항**

장윤정 콘서트, 교민들의 성원으로 성황리에 치러져

- 쉽지 않은 콘서트 개최로 또 다른 공연문화 심어
- 장윤정 바우바우市 관광홍보대사로 임명 되기도



가수 장윤정씨의 빼어난 열창과 풍부한 입담으로 자카르타의 밤은 즐거웠다.

지난 2월 20일 자카르타 시에 위치한 공연장인 JITEC엔 현재 인도네시아에 한류와 한글 바람이 불고 있는 시기에 발맞춰 ‘한글사랑’을 주제로 한 <한글사랑 장윤정 자카르타 콘서트>가 개최되어 교민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사했다.

K-TV(대표 박영수), DNA(대표 고희석), BEAN R&A가 주최·주관하고 재인니한인회, 주인니한국대사관,

코린도, KMK, LG, 한국세라믹, 우리은행, 외환은행, PT.SEJIN 등 많은 단체들이 후원한 금번 콘서트는 1500여명이라는 예상외의 많은 교민들이 참석하는 등 뜨거운 호응을 보였다.

장윤정씨의 오랜 팬이었다는 교민에서부터 부모님께 특별한 선물을 하고 싶어서 손을 잡고 나왔다는 며느리, 인도네시아에서 흔치 않은 콘서트를 직접 관람해 보고 싶었다는 교민들 까지 콘서트를 찾은 교민들의 이유는 다양각색이었다. 한 교민은 ‘어려운 콘서트 환경임을



장윤정의 콘서트를 보러 공연장을 꽉 채운 1500여명에 이르는 교민들.



(왼쪽)바우바우시에서 장윤정씨를 관광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오른쪽) 코미디언 홍록기씨가 공연 중간 중간 교민들과 만담을 나누고 있다.

감안하고 용감히(?) 개최를 강행한 주최측의 성공과 계속될 한국 가수들의 인도네시아 콘서트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라는 애국심이 흠뻑 묻어나는 이유를 전하기도 했다.

콘서트 MC를 맡은 코미디언 홍록기씨가 무대에 올라 흥을 돋우고, 최근 '사랑에 뛰길래'로 인기를 얻고 있는 40대 신인 가수 최영철씨의 열창과 지난해 공식표기문자로 한글을 채택한 인도네시아 바우바우시 전통무용단의 멋진 공연으로 1부 순서가 이어졌다. 특히 바우바우시 전통무용단은 자신의 전통무용에 한국의 부채춤을 가미한 새로운 무용으로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더없이 가깝다는 것을 표현해 많은 관중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고 장윤정씨를 바우바우시 관광홍보대사로 위촉하는 등 각별한 애정을 보였다. 장윤정씨는 한글 발전기금에 써달라며 아미르 바우바우시장에 전달하고 또한 주최측에서도 인도네시아 한글 발전기금을 한인회에 전달했다.

1부가 끝나고 이어 무대에 오른 장윤정씨는 풍부한 가창력과 교민들과의 쌍방향 입담으로 공연 내내 감동과 웃음을 선사했다. 장윤정씨는 '어머나' '콩깍지' '어부바' 등 자신의 히트곡들과 '눈물의 부르스' 등 신곡을 울렸던 유명 가요를 관중들과 함께 열창했다.

공연 중간 중간 무대에 오른 홍록기씨는 교민들에게 장윤정씨의 사인이 적힌 CD를 선물하는 등 교민들과의 재치 있는 만담으로 콘서트의 즐거움을 배가 시켰다.

바우바우시 무용단이 그들의 전통무용 공연을 펼쳐보이고 있다. 무용단은 올해 서울시가 주최하는 하이페스티벌에 특별 참가하게 된다.

약 1시간 반 동안 계속된 장윤정 콘서트가 끝나자 교민들은 '앵콜, 앵콜'을 외치고 자리에서 일어나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며 콘서트가 끝나는 것을 아쉬워했다.

장윤정을 섭외하고 콘서트를 주관한 교회석(DNA 대표)씨는 "한인사회에 아직은 익숙지 않은 콘서트가 교민들의 아낌없는 성원이 없이는 이뤄질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말하며 성공적인 공연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준 교민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전했다.



일시 : 2010년 2월 6일(토) 7시PM
장소 : The Ritz-Carlton Hotel, Jakarta



봄이 오는 소리를 느껴보세요

- 한인음악협회, 창립 10주년 기념콘서트 개최

지난 2월 6일 자카르타 리츠칼튼 호텔에서는 한인사회의 가장 오래된 예술협회 중 하나인 재인도네시아 한인음악협회(이하 음협, 회장 이은애)의 창단 10주년 기념 콘서트가 성대하게 열렸다.

이은애 음협 회장은 “10년의 세월에 감회가 새롭다”고 소감을 밝히며 창단 10주년을 기념해 사계절이 없는 인도네시아에서는 느끼기 어려운 한국 봄의 느낌과 소리를 교민들에게 전달하고 싶어 ‘프리마베라 콘서트’라 이름을 붙였다고 말했다.

250여 교민들이 홀을 꽉 매운 체 인도네시아 감리교신학대학 교회음악과 학생들의 풀린땅과 앙골롱의 합주로 기념 콘서트의 서막이 올랐다.

전문 피아니스트 못지않은 발군의 실력을 소유한 유진씨의 쇼팽의 셋트조 op.31 연주와 심상준씨의



이은애 음악협회 회장이 창립 10주년 기념 케익을 커팅하고 있다.

플루트와 한정림 씨의 피아노 연주에 화음을 이룬 유지영 씨의 슈베르트 곡 Der Hirt Auf Dem Felsen 이 홀 전체에 가득 울려 퍼지자 뜨거운 박수로 관중들은 화답했다.



이어 이일하 씨의 색소폰 연주, 바리톤 안영수 씨의 환상적인 성악무대가 이어지자 관중들은 숨을 죽이며 공연에 몰두했다.

2부에서도 감동적인 공연이 이어졌다. 신정일씨와 박혜진씨가 바이올린과 첼로를 켜고 연주, 우경희씨가 피아노를 연주한 Piano Trio Op. 49 No.1, 가야금의 조은경씨와 이덕기씨의 장구가 멋들어지게 연주된 ‘침향무’, 황화숙씨의 소프라노 솔로 공연, 유진씨와 심한나씨의 피아노 듀오 연주등이 관중의 탄성을 자아냈다.

그리고 이은애 회장이 유미성의 시에 직접 음율을 입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를 끝으로 콘서트는 아쉬움을 남기며 끝을 맺었다.

콘서트에 대한 관중들은 반응은 ‘찬사’ 그 자체였다. 한 교민은 “10년 관록의 역사를 응축되게 느낄 수 있었으며 연주자들의 수준은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완벽했다”고 전하며 “10점 만점에 10점을 주고 싶다”고 엄지손가락을 들어 올렸다.

음협은 뉴밀레니엄의 첫 해인 2000년 5월 5명의 회원으로 조촐하게 창립됐다. 그리고 그 해 12월에 개최한 창립연주회 이후 다섯 번의 정기연주회 및 네 번의 초청연주 등 꾸준한 활동과 교민들과의 교감으로 사랑을 받아 현재 그 회원이 19명에 이른다. 또한 매년 청소년을 대상으로하는 청소년 음악회를 개최해 젊은 음악인을 발굴하는 문화단체로서의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이웃 격려와 지역 한인 2세를 위한
찌뜨라라야 무지개 공부방 개소식
 2010년 2월 20일 (토)
 사랑의전화운동본부, 인도네시아 우리은행, 한인선발협의회
찌뜨라라야 무지개 공부방 장학금 수여식
 우리 장학회



찌뜨라 라야 지역 다문화 가정 한인2세 위한 “무지개 공부방” 개소

땅그랑의 찌뜨라 라야 지역 단지내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다문화 가정 어린이들에게 새로운 공동생활 공간이 생겼다.

지난 2월 22일 우리은행(행장이민재), 재인니선발협회(회장 송창근), 사랑의전화운동본부가 주축이 되어 찌뜨라 라야 지역 단지내의 다문화 가정 세대 어린이와 부모들을 위한 ‘무지개 공부방’을 개소하고 그동안 찌뜨라 라야에서 선교일과 더불어 학생들에게 공부를

가르쳐 왔던 고재천 선교사 부부는 교민 기업과 단체의 후원으로 학생들의 학습지도를 하게 되었다.

우리은행 이민재 행장은 찌뜨라 라야 지역내의 일부 다문화 가정 한인 2세들의 생활 환경을 보고 놀랐으며 “인도네시아 국적을 가졌지만 우리들의 자녀들이라면서 이들에게 작은 관심이라도 베풀고 싶어 공부방 개설을 계획했다”고 전했다.

앞으로 공부방 운영을 책임지게 될 고재천 선교사 내외는 “방과 후 갈 곳이 없어 PC방 등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아이들에게 우리 말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공부방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전하며 앞으로 이곳에서 우리 학생들의 꿈이 커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무지개 공부방 개소식때 김하나 학생을 비롯한 12명의 어린이들이 장학금을 전달받았다. 사진은 이민재 우리은행장이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는 장면



한인 2세 학생들이 감쪽한 울동과 함께 한글학교에서 배운 노래를 부르고 있다

개소식에는 다문화가정 한인 2세의 손을 꼭 잡고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나온 부모들과 공부방 개소를 후원한 많은 한인기업 대표들이 자리했으며 풍물패인 한바패와 PT. KMK의 직원들의 공연으로 공부방 개소를 자축했다.

개소식에 참석한 김호영 대사는 “글로벌 시대 다문화 가정은 자연스런 현상이고 우리의 이웃이 된다.”고 말하며 편견이나 무지로 인해 소외되거나 낙오되지 않도록 우리 서로가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아이들에게는 또래 다른

아이들과도 잘 어울려 성장해 주길 당부했다.

송창근 신발협회 회장도 시작은 작은 공부방이지만 이곳에서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인도네시아내의 우수한 학자와 국회의원들도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관심의 끈을 놓지 말자고 제안했다.

이날우리는행과신발협회,세립,BPG등많은한인기업들은성적은우수하나가정이어려운김하나학생을비롯한12명의어린이들에게장학금을전달했고한마음교회의장영수목사는참석한모든이들과함께다문화가정어린이들이한-인니양국의가교역할을충분히해낼수있는인재로성장하길바라는기도를했다.

찌뜨라 라야가 속한 땅그랑 지역은 우리 한인기업 최초 진출 지역으로서 한인사회의 희로애락을 같이한 지역이기도 하다. 땅그랑 지역은 신발과 봉제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 기업들 다수가 활동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한인 다문화가정의 밀도가 높은 곳 중의 하나이다.

2층 루프를 임대한 공부방은 학습실과 도서관, 컴퓨터 실을 갖추고 있으며 어린이들 뿐만 아니라 부모들의 모임장소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인도네시아 지회는 무지개 공부방을 활용해 2세들에게 정기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게 된다



무지개 공부방을 운영하게 되는 고재천, 강영자 선교사 내외



무궁화 유통 창립 30주년 기념식 개최

- 한,인니 각계각층 참여 성대히 열려
- 김우재 회장 회고록 “인도네시아에 핀 무궁화” 출판기념회도 가져

지난 2월 22일 자카르타 샹그릴라 호텔에서는 올해 2010년을 맞아 창립 30주년이 된 무궁화유통기념식과 더불어 김우재 무궁화유통 회장의 인도네시아 30여 년 역경과 성공을 담은 회고록인 ‘인도네시아에 핀 무궁화’ 출판기념회가 동시에 열렸다.

이날 행사장은 김호영 주인니한국대사를 비롯 또백 끼에마스 국민협의회(MPR)회장, 린다 아말리아 여성부장관, 아곰 인니체육회장 등 평소 친분을 두텁게 나누고 있던 내외 인사들과 5백여 명이 넘는 교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무궁화유통의 30년 주년을 축하했다.

김우재 회장은 기념사에서 “30대 중반의 젊음을 담보로 한 어찌 보면 무모하기까지



한 모험이었고 절망감에 빠진 적도 적지 않았지만 주위의 많은 도움으로 이겨낼 수 있었다”며 지난 날을 회상했다. 또한 그는 회고록에 붙여 “선배로서 지금 해외에 나가 사업의 꿈을 펼쳐 보이고 싶은 후배들을 위해 글을 써내려 갔다”며 천혜의 자원대국이자 세계 4위의 인구를 지니고 있는 매력적인 인도네시아에 큰 뜻을 품어볼 만 하다고 전했다.

1943년 충남 홍성에서 출생한 김우재 회장은 한국항공대학을 졸업하고 약 10년간 대한항공에서의 직장생활을 뒤로하고 해외사업 개척의 꿈을 펼치기 위해 1977년 깔리만탄의 원목개발 현장에 뛰어 들었다. 하지만 인니 정부의 갑작스런 원목수출금지라는 벽에

30대 중반 젊음을 담보로 인도네시아에 첫 발을 딛고 많은 모험과 역경으로 살아온 김우재 회장이 그의 30년 인도네시아 역사를 담아낸 회고록 〈인도네시아에 핀 무궁화〉를 들고 포즈를 취했다.

김 회장은 “인도네시아에 진출하려고 하는 후배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글을 집필하게 되었다” 며 천혜의 자원대국이자 많은 매력을 지니고 있는 인도네시아에 큰 뜻을 품어볼만 하다고 전했다.

KOICA, 카리안댐-세르퐁간 도수로 및 정수장건설 사업등에 150만불 지원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2월 11일, 인도네시아 공공사업부에서 카리안댐-세르퐁간 도수로 및 정수장건설 마스터플랜수립 및 타당성조사사업에 150만불을 무상지원키로 하고, 이종선 KOICA인니사무소장 및 Dr. Ir Moch Amron 공공사업부수자원국장이 양국가를 대표하여 서명하였다.

KOICA는 지난 2006년 카리안 다목적댐 및 도수로 건설 타당성조사사업(170만불)을 지원한 바 있으며, 인도네시아정부는 현재 우리나라 차관(EDCF)사업으로 카리안댐을 건설코자 지원요청한 상황이며, 후속사업으로 표제사업을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방식으로 추진코자 KOICA에 경제적, 재무적 타당성조사를 요청하였다.

동 사업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자카르타, 보고르, 땅그랑, 버카시(자보타백)지역의 도시화 및 산업화 영향으로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의 수요가 급속하게 증대됨에 따라 수자원 개발 필요성이

증대되어 한국정부에 최적의 생활용수 공급방안 검토를 요청하였고, 우리정부는 금번 사업을 통해 무.유상원조 사업을 연계하여 지원성과를 극대화하고자 지원을 결정하게 되었다. 향후 카리안 다목적댐 건설에 이어 도수로 및 정수장이 건설될 경우, 지역주민의 물부족 해소 및 도수로 유지관리를 통한 교통개선효과를 거둠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 및 고용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환경 친화적인 댐 및 도수로 건설을 통해 한국의 선진 물관리 기술을 인도네시아에 전수하여 수자원 및 상수도 분야 기술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본사업은 정부 차관사업과 민관투자사업의 결합된 모델 및 무상원조와 유상원조가 결합된 모델 등으로 그 상징성이 크며, 사업추진시 우리나라의 수자원 분야 기술력에 대한 국제적인 홍보효과 기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의 도수로 및 정수장 건설사업 수주 가능성도 큰 것으로 기대된다.

부딪혀 호구지책으로 된장과 고추장, 김치 등을 제조해 판매하기 시작한 것이 현 무궁화 유통의 모태가 되었다. 현재 무궁화는 자카르타의 본점을 비롯한 위성도시에 3곳의 지점과 물류창고, 여행업, 제과업, 부동산업 등 사업영역이 넓어지고 있는 중견업체로 발돋움해 있다.

무궁화유통 대표로 새로 취임한 김종현 대표는 “고객만족경영, 사람존중경영, 새로운 가치창조 경영”

이라는 3대 비전으로 향후 2020년 까지 15개 지점 확대, 인니 10위권 유통기업으로의 약진을 통한 고객중심의 기업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평소 현지 심장병어린이 돕기에 힘써온 무궁화유통은 인니심장병어린이재단에 1억 루피아를 수혈보조기금으로 전달했고 재단측에서도 무궁화유통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동서발전, 인도네시아 석탄 발전소 진출

- 석탄 발전소 건설 및 30년 운영권 MOU 체결

한국동서발전(주)(사장 이길구)은 지난 2월 18일 인도네시아 Bakrie Power사와 석탄발전소 공동 개발과 O&M 운영 및 기술자문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

이날 동서발전은 자카르타 포시즌 호텔에서 Bakrie Power의 Ali H.I. 사장과 민간이 주도하여 자금을 조달하여 건설하고 소유권을 가지고 운영하는 BOO 방식으로 추진되는 일명 ‘상가타 프로젝트(Sangatta Project)’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인도네시아 동 깔리만탄 지역의 상가타에 석탄 탄광과 연계한 설비용량 200MW의 석탄발전소 건설하고 운영을 맡게 된다.

약 4.5억 달러의 건설 총 사업비가 들어가는 발전소는 올해 착공하여 2013년에 준공예정이고 매년 동서발전 참여 지분대비로 약 3천 9백만 달러의 수익이 예상된다.

MOU 체결식에 참석한 동서발전의 이정원 감사는 “세계 최대 석탄 광산을 가지고 있는 Bakrie Power와의 발전소 운영에 관한 사업은 물론 정비사업과 기술자문 등의 전반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안정적인 유연탄 조달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Bakrie Power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석탄광산인 KPC를 보유한 인도네시아 최대 기업인 PT. Bakrie & Brothers의 자회사로 인도네시아 내 민간발전사업자 (IPP)이다.





코린도 장학재단(이사장 정무웅)은 지난 2월 18일 1년간 연세대학교 학부 교환학생으로 유학하게 될 국립 인도네시아대학교에 재학 중인 Inez Yorisha Kemala 양과 인도네시아 산림청 직원으로서 2년간 세종대학교 대학원 MBA 과정에 수학할 Hasto Nugroho 군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코린도 장학재단, 인니 유학생 지원

- 연세대 학부 1명, 세종대 대학원 1명

코린도 장학재단 (이사장 정무웅)은 지난 2월 18일 오후 3시 코린도 본사 14층 홍보관에서 2명의 인도네시아 유학생에 대한 장학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장학증서에는 수업료 외에 유학기간 동안의 생활비와 왕복항공료가 포함 되어 있다.

장학증서를 받은 학생은 1년간 연세대학교 학부 교환학생으로 유학하게 될 국립 인도네시아대학교에 재학 중인 Inez Yorisha Kemala 양과 인도네시아 산림청 직원으로서 2년간 세종대학교 대학원 MBA 과정에 수학할 Hasto Nugroho 군이다.

정무웅 코린도 장학재단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한국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학업 외에도 많은 활동에 참여하여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이를 인도네시아에

전해주기 바란다” 고 말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Raphaella D. Dwianto, Ph.D. 인도네시아대학교 국제협력처장은 답사에서 연세대 및 코린도그룹에 감사의 말을 전했으며 Ir. Helmi Basalamah 인도네시아 산림청 교육훈련원장은 양국 간의 외교 및 경제협력에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말하였다.

코린도그룹에서 2003년부터 지금까지 지원한 유학생은 세종대학교 대학원에서 이미 수학을 마치고 귀국한 학생이 12명이며 연세대학교 학부과정에 교환학생으로 다녀온 학생은 7명이다. 코린도 장학재단은 앞으로도 계속하여 인도네시아 대학생들을 한국으로 보낼 예정이다.



살아서 하늘사람 되세요

- 마음수련 창시자 우명선생 초청 공개 강좌 개최

마음수련의 창시자이며 2002년 9월, 인간 내면의 성찰과 본성 회복, 화해와 평화에 기여한 공로로 UN-NGO <세계 평화를 위한 국제교육자협회 (IAEWP;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Educators for World Peace)>로부터 교육계의 노벨평화상이라 불리는 <마하트마 간디 평화상>을 수여 받은 우명 선생의 초청강연이 지난 3월 4일 약 100여명의 교민이 참석한 가운데 자타르타의 술탄호텔에서 있었다.

우명 선생은 출판사업과 교육학원 원장을 겸하고 있었던 40대 후반 인생에 관한 통찰을 통해 마음을 파악하고 진리를 깨닫게 된 인물로 1996년 마음수련을 창시하고 마음과 진리에 대한 일깨움의 대중화에 힘쓰고 있는 중이다.

찰스 마르시에카 UN-NGO 세계 평화를 위한 국제교육자협회 회장은 “마음수련은 모든 종교와 문화를 초월하는 수련법으로 어떤 거짓이나 속임 없이 아주 진실하게 이루어진다. 우리가 갖고 있는 대부분의 질병들은 주로 불필요한 욕망과 걱정, 스트레스에서 나오는데, 마음수련은 그런 마음들을 없애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한다. 또 인생에서 부딪치는 많은 문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하게 해준다.”며 극찬하기도 했다.

강연에서 우명선생은 진리(참) 즉 본래 속의 인간들이

우리의 마음세계에서 참이라 알고 있는 겉겉으로 쌓여있는 거짓들을 한 꺼풀씩 벗겨내 참과 거짓을 명확히 직시하고 참을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 진리와 하나가 되는 것이 곧 마음수련의 목적이라고 밝히고 각 단계별 명확한 수련법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억된 생각 버리기(1단계) ▶ 자기의 상과 인연의 상과 자기 버리기(2단계) ▶ 자기의 몸 버리기(3단계) ▶ 자기의 몸과 우주 버리기(4,5단계) ▶ 자기가 없어서 우주 되기(6단계) ▶ 허상세계와 그 속에 살고 있는 자기 버리기(7단계)의 7단계 수련과정을 거쳐 모든 인간은 본래에서 다시 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공개 강좌 전 마음수련 소개와 직접 수련하고 있는 수련자들의 체험담을 듣는 시간도 가졌다.

우명 선생은 저서로 <진짜가 되는 곳이 진짜다> <살아서 하늘사람 되는 방법> <하늘이 낸 세상 구원의 공식> <영원히 살아 있는 세상> <세상 너머의 세상> <하늘의 소리로 듣는 지혜의 서> 외에 영역관 등 다수가 있다.

현재 자카르타에도 마음수련회가 있으며 많은 교민들이 수련에 참여하고 있다.

(마음수련회 안내 : 021-722-1600)



박해주 동부자바 한인회 고문 (왼쪽 두번째)
 최창식 은행장(왼쪽에서 세번째), 임택선 동부자바한인회장
 (왼쪽에서 다섯번째), Mr.Bambang D.H 수라바야시장
 (오른쪽에서 세번째), 이태윤 하일론 고문 (오른쪽에서
 두번째)

하나은행, 수라바야 지점 개점.

최창식 은행장 “ 든든한 동반자로 최고 서비스로 보답할 것” 밝혀

인도네시아 하나은행(은행장 최창식) 지난 2월 23일, 인도네시아 제2의 도시인 수라바야(Surabaya) 지점의 개점식을 개최했다.

수라바야는 Jawa섬 동부에 위치한 오랜 역사의 항구도시로, 제조, 무역 및 서비스업이 발달되어 있는 Java섬의 물류집중지역이다.

한국계 은행 최초의 지점 설립에 현지에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현지 수라바야 시장인 Mr. Bambang D.H. 씨가 직접 개점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전달하였으며, ‘Jawa Pos’ 등 유력 일간지에도 개점 소식이 전해졌다.

수라바야 지점은 내외곽에서 접근이 용이한 신시가지 중심지에 자리잡고 있어, 향후 동부 Jawa 지역의 영업 본부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로서 인도네시아 하나은행은 총 18개의 지점 network를 보유하게 되었으며, 금년 중 6개의 지점 신설이 추가로 예정되어 있다.

인도네시아 하나은행은 2009년말 현재 총자산 1조8천억루피아 (자본금 5천억루피아)로 하나은행 (75.1%) 과 World Bank 산하기관인 IFC(19.9%)가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금년도 총자산 3조루피아 달성이 예상되며, 2012년까지 인도네시아의 메이저 은행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최창식 은행장은 ‘저희 하나은행은 수라바야의 한국계 법인고객 및 교민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최상의 서비스로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라고 전하며 수라바야 지점의 교민 서비스를 다짐했다.



탱글탱글 보랏빛깔

젊음의 과일 Anggur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생산되는 과일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은 사과, 귤 등등을 생각하시겠지만 바로 포도 Anggur입니다. 주로 따뜻한 지역에서 재배되며 이탈리아와 프랑스, 스페인에서 전 세계 생산량의 35%가 생산될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Anggur가 제일 많이 생산되는 이유는 anggur가 전 세계적으로 온도나 지역에 상관없이 고르게 생산되고, 특히 유럽에서 집중적으로 재배되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도 어느 지역에서나 쉽게 anggur를 볼 수 있습니다. Anggur에는 수천가지의 종류와 맛이 다 틀리며 그 효능 또한 천차만별입니다. Anggur는 영양덩어리라고 불릴 만큼 풍부한 영양분을 갖고 있습니다. 달고 시원한 수분의 알맹이는 물론 껍질부터 씨까지 어느 것 하나 버릴 게 없는 게 이 과일의 특징입니다.

미국 TIME 지가 선정한 21세기 베스트 식품 10가지 중 하나로 뽑힌 보랏빛 컬러의 과일, Anggur의 숨겨진 비밀을 하나하나씩 벗겨 볼까 합니다.

Anggur의 학명은 Vitis Vinivera L.입니다. Anggur의 식물학적 계층구조를 살펴보면 쌍떡잎식물 갈매나무목 포도과 포도속 낙엽성 덩굴식물입니다. 같은 포도과 식물들을 살펴보면 Anggur의 친척뻘인 머루, 가회툽이 있는데 가회툽은 한방에서 백렴 또는 백근이라 하여,

소아경기·결핵성립프선염·자궁내막염·장염·치루·화상·창독(瘡毒) 등에 처방합니다.

Anggur의 원산지는 코카서스 지방과 카스피해 연안이 원산지로서 BC 3000년 무렵부터 재배하였습니다. 고대 이집트 왕조의 무덤에서 발견된 anggur를 재배 하는 모습을 그린 벽화로 추측해 보면 기원전 15~16세기경 이집트를 포함한 고대 오리엔트 일대에서 지금과 같은 재배법으로 anggur를 재배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벽화, 신화, 전설, 성서 등을 보면 anggur는 식용으로서만이 아니라 때로는 문화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장식 문양과 함께 동서로 널리 전파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Anggur의 품종에는 유럽종·미국종·교배종이 있습니다. 유럽종은 전과 과정에 따라 남유럽계·중앙아시아계·동아시아계 등의 재배형으로 분화하였으며, 오늘날까지 총 15만여 품종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보라색의 포도 외에도 빨강색, 보라색, 흰색, 녹색 등 다양한 색의 종이 있습니다.

Anggur의 한의학적 특징을 살펴보면 성질은 평(平)하고 맛은 달고 시며(甘, 酸) 독이 없습니다. 귀경으로는 수태음폐경, 족태음비경, 족소음신경에 작용합니다. 기혈이 부족한데, 폐허로 오는 기침, 심계, 식은땀, 비증, 임증, 부종등에 쓰며 신경쇠약, 신염, 만성기관지염에도 씁니다.

동의보감에 따르면 ‘습비(濕痺)와 임병을 치료하고 오줌이 잘 나가게 하며 기를 돕고 의지를 강하게 하며 살찌게 하고 건강하게 한다’라고 하였으며, 중국의 신농본초경에서도 포도에 대해서 “근골 습비를 다스리고 기력을 도우며 의지를 강하게 한다. 몸을 살찌게 하고 튼튼하게 하며 기아에 견디게 하고 풍한(風寒)에 견디게 한다. 술을 빚을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Anggur의 생김새를 살펴보면 동글동글한 알맹이들이 가지에 매달려서 하나의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포도는 약간 붉은빛을 띄고 있으며, 껍질을 까려면 손으로 까야할 정도로 과육알맹이와 밀착되어 있습니다. 맛은 달콤새콤하며, 씹으면 육즙이 배어나오며 그 맛이 더해집니다. 달달한 향기가 뛰어나 냄새만 맡아도 기분을 상쾌하게 해주며 입맛을 돋우는 거 같습니다. 과육 안에는 씨앗이 있으며, 우리는 흔히 이 씨앗을 버리고 먹지만 씨앗에는 타닌과 토코페롤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암을 예방하고 혈관의 노화를 막아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식용유들도 포도씨유라고 나와 애용되는 걸 보니 버릴 것 없는 과일인거 같습니다.

효능을 살펴보면 Anggur는 알카리성 식품으로 성분은 전호당, 주석산, 포도산, 타산, 타닌, 초석유산, 칼슘, 칼륨, 유산가리, 인산가리 등이 들어있으며 Vitaman A, B, B2, C, D등이 풍부히 들어있습니다.

비타민과 유기산, 구연산 등의 각종 영양소가 풍부하여 단독으로 복용해도 큰 무리가 없으며, 몸 속의 독소를 분해하고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칼륨은 이뇨작용을 도와 부종을 가라앉히고 혈액순환을 좋게 하며, 또한 위액을 촉진시켜 소화를 돕고, 칼로리가 낮고 적은 양으로도 포만감을 느낄 수 있어 다이어트 하시는 여성분들에겐 더더욱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도에는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는비타민 C 와D가 풍부하게 들어 있어 피로회복, 골다공증을 비롯해서 갱년기 여성의 여러 질병을 치료해 주고, 피부미용에 효과가 큰 레몬산, 사과산, 주석산 등이 풍부해서 탄력 없고, 주름 많은 피부에도 꾸준히 복용하면 노화방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몸 안의 노폐물과 독성을 배출시키고 병든 세포를 제거하여 깨어진 몸의 균형을 되찾아 체질을 개선해 주며, 바이러스 활동억제, 충치예방, 암 억제에도 효험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 예로 우리가 탈수증상이나 기력이 떨어 질 때 병원에서 맞는 링거역시 포도당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Anggur의 단맛은 포도당과 과당에 의한 것으로, 포도당은 몸 안으로 흡수되기 쉬운 형태에서 중병을 앓는 사람의 빠른기력 회복에 좋습니다. 그래서 흔히 병원에서는 링거로 이용됩니다.

Anggur를 고를 때는 줄기가 싱싱하고 굵은 알맹이가 빈틈없이 붙어 있는 것, 가장 아래쪽 anggur의 맛을 보아 단것, 껍질에 하얀 가루가 많이 묻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 Anggur에 묻어있는 농약을 없애려면 식초를 조금 넣은 식초물에 담가놓거나, 소금물로 씻어낸 다음 흐르는 물에 행구면 좋습니다.

Anggur 열매는 가공되지 않은 상태로도 먹을 수 있는 과일이며, 포도주, 주스, 젤리 등을 만드는 데에도 사용됩니다. 건포도를 만들어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수분과 껍질 속의 타닌 성분 덕분에 우리는 신이 주신 음료라는 와인을 얻을 수 있습니다. Anggur의 영양을 송두리째 건네받은 달콤 짭짤한 와인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서 마시는 채소로 불리기도 하며 심장병과 치매를 예방한다고 이미 여러 차례 검증되었으며, 또한 성경에는 소량의 포도주는 위에 좋다고 하였고(디코테오 전서 5장 23절), 리포크라테스를 비롯한 수많은 의사들은 와인은 하나의 의약이라고 할 정도로 입증된 음식입니다.

비타민과 유기산의 풍부하여 과일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anggur는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사랑 받는 과일이자 우리건강을 지켜주는 웰빙 과일이라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식욕이 떨어지거나 피곤할 때 식사와 함께 분위기 있는 와인으로 곁들이고, 후식으로 anggur로 마무리 한다면 더도말고 덜도마는 우리 몸의 건강지킴이가 아닐까 합니다.

술한의원 원장 김효영
vitavic@naver.com 021 7278 7410

前 문화홍보관 윤문한, 김상술씨 인도네시아 입문서 펴내...

480여 종족과 586개의 지방언어를 지닌 세계 최대의 다문화다민족 국가인 인도네시아에 대한 두 권의 책자 『인도네시아 들여다보기』와 『아빠 까바르? 인도네시아』가 올해 1월과 3월 출간되어 화제가 되고 있다.

교과서처럼 딱딱하지도, 관광명소에 대한 홍보 내용도 아닌, 우리의 고향 같고 또 많은 우리 교민들이 살아가고 있는 진정한 이웃처럼 따뜻한 시선으로 보고 그려내고 있는 책자의 저자는 외교관으로서 2000년 이후 주인도네시아대사관 홍보관을 지낸바 있는 윤문한 씨와 김상술 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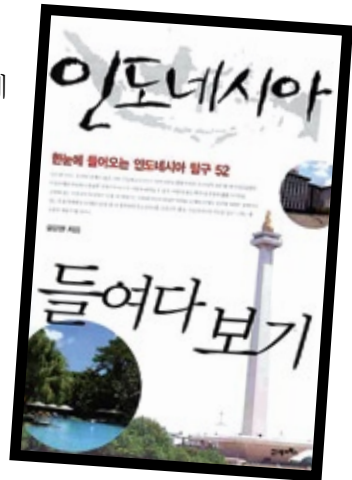
『인도네시아 들여다보기』의 저자 윤문한 씨는 지난 2006년 5월부터 2009년 2월까지 대사관 홍보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인도네시아의 실체와 변화를 보고자 노력했다. 그는 인도네시아가 개최한 많은 행사에 참석하기도 하고, 한국에 대한 이해증진 일환으로 다양한 문화 및 체육행사를 직접 기회 및 개최하기도 했으며, 민간 부문의 여러 교류행사를 지원했다. 현지

언론을 포함해 정부, 문화계, 하계 등 여러 분야 인사들과 접촉하면서 그들이 스스로 보는 시각과 우리를 보는 시각드를 파악하고자 했다.

제1부: 못말리는 인도네시아인, 자랑스런 이슬람 문화, 제2부: 인도네시아를 발전시키는 힘, 가로막는 장애, 제3부 자카르타와 친형제 도시, 이복형제 도시 이모저모, 제4부: 인도네시아 속 대한민국, 특별한 이웃 이야기라는 네개의 큰 주제가 비슷한 비중으로 나눠져 있는 『인도네시아 들여다보기』는 인도네시아의 여러 측면을 소주제별로 분류해 가능한 정책이나 제도 등과 연계해서 설명함으로써, 좀 더 실질적인 인도네시아를 알고자 노력한 점이 두드러진다.

그는 특히 인도네시아의 잠재력에 주목하고 일반 한국국민들의 인도네시아에 대한 긍정적 측면 이해를 돕는다.

한국의 일반 국민들의 열대후진국, 이슬람국가, 휴양지로 유명한 발리가 있는 나라 등으로부터 테러, 쓰나미, 지진, 대홍수, 부정부패, 장기독재, 조류독감 등등 부정적 이미지 등에 그치는 것 같다면 인도네시아에 대한 시선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의 긍정적 측면이나 우리 국익에 유익한 정보들은 거의 모른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들여다보기』의 저자 윤문한 씨는 지난 2006년 5월부터 2009년 2월까지 대사관 홍보관으로 재직했다. 그는 재직 동안 현지 언론을 포함 정부, 문화계, 하계 등 여러 분야 인사들과 접촉하면서 인도네시아의 실체와 변화를 보고자 노력했다.



세계 최대의 이슬람국가이자 세계 4위 인구대국, 천연자원의 부국,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주도국, 우리나라가 2010년 11월에 처음 개최할 세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체의 유일한 동남아시아 참가국, 2008년 기준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열한 번째,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다섯 번째

교역상대국, 2006년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된 외교관계 등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고 우리나라와도 경제협력국으로서 매우 중요한 위상을 갖고 있는 나라라고 역설한다. 천연자원이 절대 부족한 우리에게 인도네시아는 중요한 국가이며 나아가 기회의 나라일 수 있고, 따라서 점점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우방국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아빠 까바르? 인도네시아』의 저자인 김상술 씨는 일찍이 공직에 입문하여 문화공보부를 시작으로 공보처, 국무총리 공보실, 국정홍보처 등 문화홍보업무에 정진해 오다 지난 2002년 주인니한국대사관의 홍보관으로 부임 4년간 근무한 바 있다.

김상술 씨는 근무 당시 인도네시아는 경제·사회·정치적으로 격동의 시기로 정치적으로는 안정을 찾았지만,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테러, 지진, 쓰나미, 조류인플루엔자, 홍수 등으로 사회가

불안한 상태였지만 이러한 열악한 환경하에서도 한류의 싹이 트고 당시 우리 문화를 심고 가꾸는데 나름대로 열정을 쏟았던 그의 경험을 공유하고, 앞으로 한류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아빠 까바르? 인도네시아』를 발간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에서 4년간 외교관으로 근무했던 당시 겪은 인도네시아의 지진, 쓰나미, 폭탄 테러 등 잦은 재해와 사건을 소개하면서 인도네시아는 자연재해가 많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결코 위기의 땅이 아닌 기회의 땅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풍부한 자원과 2억 4천만에 달하는 인구를 가진 인도네시아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우리나라와 외교적으로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형성하면서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이 날로 늘어나고 우리기업들의 관심과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소개한다.

『아빠 까바르? 인도네시아』 1부: 멀고도 가까운 나라 인도네시아-다양성 속에 조화 이루어, 2부: 가보고 싶고 살고 싶은 나라-천혜의 자연경관, 다양한 문화유산, 3부: 한류와 문화교류 쌍방향 문화교류 바탕 위에 한류확산, 4부: 인도네시아의 한국 동포사회-기회의 땅 인도네시아, 날로 성장하는 동포사회 라는 큰 주제로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인터뷰: 김영민 한인뉴스 편집위원>

『아빠 까바르? 인도네시아』의 저자인 김상술 씨는 2002년 주인니한국대사관의 홍보관으로 부임 4년간 근무했다. 그는 근무 당시 한류의 싹이 트고 당시 우리 문화를 심고 가꾸는데 나름대로 열정을 쏟았던 그의 경험을 공유하고, 앞으로 한류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집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글 김문환

시사포커스 20

도마뱀과 악어, 그리고 들소

요즘 인도네시아 정국은 도마뱀, 악어, 들소가 등장하여 동물농장을 방불케 한다. 국군 조직에서 분리되어 민생치안유지권을 독점하며 그 조직이 갈수록 비대해지고 있는 경찰청의 한 고위간부가 자신들을 악어(Buaya)에 비유하며 최근 무소불위의 힘을 발휘하며 라이벌로 부상하고 있는 부패방지위원회(KPK)를 도마뱀(Cicak)이라고 폄하 발언을 하자 언론에선 이들 양 권력기관의 힘겨루기를 소위 '도마뱀과 악어(Cicak-Buaya)의 싸움'이라고 회화하고 있다. 산림 통신장비 납품비리로 인해 피의자가 되어 싱가포르에 도피 중인 사업가 앙고로(Anggoro Widjoyo)를 대리하여 그의 동생인 앙고도(Anggodo Widjoyo)가 형의 구명을 위해 부패방지위원회에 뇌물을 공여를 하였다는 혐의로 두 고위간부인 비빗(Bibit)과 찬드라(Chandra)를 구속하자 부패방지위원회는 경찰과 검찰이 부패방지위원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사건을 조작하고 있다는 내용의 도청 테이프를 공개하며 경찰에 정면 도전장을 내자 경찰청 수사본부장(Kabareskrim)인 수스노 두아지(Susno Duadji) 중장이 자신들의 우월감을 과시하면서 지어낸 용어이다.

1999년 구스 두르 정부가 경찰청을 기존 국군사령부(ABRI) 예하 조직에서 분리시켜 대통령 직속으로 이관시키면서 그 권한이 확대되어 왔다. 수하르노 정권 때까지만 해도 경찰청의 조직은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직속, 또는 내무부 예하 조직으로 유지되어 오다가 1965년 9.30 공산 쿠데타가 진압된 직후 공산당을 발본색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하르노 군부가 1967년 대통령령으로 경찰 조직을 국군사령부 예하 조직으로 편입시키게 되었다. 1998년 수하르노 정권이 종지부를 찍을 때까지 경찰군은 육, 해, 공군의 위세에 눌려 그 위상이 미약하였으며, 모든 치안 질서 유지권의 최상위 위치는 항상 육군이 차지하여 왔다. 수하르노 정부시절 전국 주지사 와 군수, 시장의 절반 이상을 항상 국군출신이 장악하여 왔는데 그 중에도 육군 출신이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경찰군 출신에게 그 직위가 돌아가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었다. 1969년부터 1971년까지 경찰청장을 지낸 후겐(Hoegeng Iman Santoso)은 지금까지도 청백리의 표상으로 추앙 받는 가장 청렴하고 강직한 경찰 고위 공직자로 국민들의 뇌리에 남아있다. 로비 짜야디(Robby Tjahyadi)라는 인물은 1970년 영부인 고향 출신의 측근들인 ‘

솔로(Solo) 그룹'과 밀착되어 관세청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을 매수하여 북부 수마트라 주 메단(Medan)과 자카르타 단중 뿌리옥 항을 통해 롤스 로이스, 벤츠 등의 고급 승용차를 무려 천 대 가량을 불법으로 반입한 밀수 왕이었다. 이를 척결하지 않고서는 국가기강이 서지 않는다고 판단한 후계 청장은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소신껏 이 사건을 파헤치던 중 느닷없이 벨기에 대사 자리를 제안 받으며 국외로 나가 줄 것을 종용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자 1971년 경찰청장 직위에서 해임되고 말았다. 이후 수하르토 군사정권이 장기 집권에 들어가면서 권력핵심부의 부정부패가

가혹한 핍박 속에 후계 청장은 1971년 청장 해임 이후 1남 2녀 자녀 및 부인과 함께 'The Hawaiian Seniors'라는 가족 보컬그룹을 결성하여 매주 1회씩 국영 텔레비전 방송국(TVRI)에 출연하여 하와이언 복장을 하고 기타반주에 맞춰 하와이언 송을 부르는 기회마저 박탈당하고 말았다. 70년대 초 한국 진출기업인 K사를 후원하던 관할 경찰서장이 당시 K사와 경제선분쟁을 벌이던 필리핀의 V사를 지원하던 육군 소속 관할 대대장이 경찰서장을 권총으로 사살한 사건에서 보듯이 항상 육군의 지위는 우위에 있었다. 그러던 경찰군이 국군에서 독립한 이후로는 그 모습이 달라지기



시민단체들이 악어를 상대로 힘없는 도마뱀을 시현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만연하자 정부 비판세력인 알리 사디킨(Ali Sadikin) 전 자카르타 주지사, 한때 수하르토의 측근이었던 케말 이드리스(Kemal Idris) 예비역 육군 중장, 전 아세안 사무총장이었던 수다르소노(Sudarsono) 예비역 육군 중장과 함께 후계 청장도 이들과 뜻을 같이하여 1980년 소위 '50인 청원서(Petisi 50)'를 발표하며 정국에 심한 격랑을 몰고 온다. 이 청원서 운동에 가담한 인물들에 대해서는 본인들은 물론 그 직계 후손들에게도 모든 공직 박탈, 해외여행 금지, 국가원수가 참석하는 모든 행사 참석 불가, 은행거래 중단 외에 항상 정보기관의 미행을 받아가며 개인생활이 통제를 받아 왔다. 이러한

시작했다. 2006년 8월 남부 수마트라 지역에서 그 동안 눌러 지내던 경찰 파견대가 같은 지역 주둔 육군부대와 교전을 벌여 쌍방에서 각각 사상자가 나올 정도로 그들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 발버둥쳐 왔으며 2009년 7월 매리엇-리츠 칼튼 호텔 폭탄 테러가 발생하자 경찰청은 그들의 대 테러 특수부대인 덴수스(Densus 88)를 앞세워 테러범들을 일망타진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쌓아 왔다. 2009년 조각 당시 역대 육군 출신 고위장성만이 이 자리에 임명되던 관례를 깨고 SBY는 수만또 경찰청장을 국가정보원장(BIN)으로 임명할 정도로 경찰청의 위상은 급상승되었다. 이렇게 경찰청의

위상이 제고되기까지는 비대한 조직 속에서 기생하여 왔던 악성종양을 도려내야 하는 아픔도 있었다. 메가와띠 대통령 시절 경찰청장인 다이 박띠아르(Dai Bachtiar)가 교체되자마자 새로 취임한 수판또(Sutanto) 청장은 그동안 경찰 내부에 만연하여 온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경찰 고위간부들에 대한 은행거래 내역을 내사하였다. 이 임무를 부여 받은 수스노 두아지 대령은 중앙은행 산하 조직인 금융거래 조사분석실(PPAKT)에 파견되어 경찰 간부들에 대한 거래내역을 상세히 조사하였다. 놀랍게도 1천억 루피아에서 8천억 루피아에 이르는 거액의 은행 잔고를 갖고 있는 고위간부가 15명이나 된다는 사실만 발표되었을 뿐 그 명단이나 내역은 일반에게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 당시 조사 주역인 수스노는 일부 고위간부들의 명단을 고의적으로 누락시켜 그들을 구명을 하여줌으로써 이들은 수스노에게 평생 빛을 지는 처지가 되었으며 이후 수스노는 경찰청의 요직을 두루 거치며 정상의 문턱까지 오르게 되었다.

정권의 향후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칠 센뚜리은행 국정조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2009년 12월 9일, '세계 반부정부패의 날'에 맞춰 시민단체들은 모나스 관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호텔 인도네시아 분수대 앞까지 가두 행진을 벌였다. 이때 번데라(Bendera)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SBY를 빗대어 들소(Kerbau)를 거리로 끌고 나와 '덩치만 크고, 게으르고, 우둔한' SBY는 물러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었다. 평소의 신중한 성격과는 달리 이에 격분한 SBY는 언론매체에 등장하여 격한 감정을 드러내었다. 그리고는 며칠 뒤 SBY는 상륙정에 직접 승선하여 순다 해협에서 실시되는 해병대 상륙작전 훈련에 직접 참가하여 용맹성을 내 보임으로서 절대 게으르지 않고 우둔하지 않다는 제스처를 보임과 동시에 단호한 조치가 뒤따를 것임을 시사하였다. 총선과 대선에서 패배한 직후부터 공식적으로 야당임을 자처한 투쟁민주당(PDIP)이 국정조사 과정에서는 '순한 양'의 자세를 보인 반면 국정의 동반자가 되기로 약정했던 골까르당은 오히려 강한 야성(野性)을 드러내며 현 정부를 코너에 몰아넣자 골까르당과의 연립체제에 균열이 생기는 것이



센뚜리은행 국정조사 기간 내내 수세에 몰려있던 집권 민주당에 루훗 시 뵈(Ruhut Sitompul)이라는 걸쭉한 수문장이 버티고 있어 그나마 실점을 줄인 셈이다. 그는 북부 수마뜨라 메단 출신으로 수하르또 전 대통령, 아끄바르 탄중 전 골까르 당수 등의 변호를 맡은 전력이 있는 명 변호사였으며 'Gerhana'라는 연속극에도 출연한 괴짜이기도 하다. 현재 집권 민주당의 최고위원인 그는 조사기간 내내 때로는 감성적인 호소로, 때로는 논리적으로 상대를 압도하였고 무례하고 거칠다는 비난은 집권당이라는 프리미엄으로 상쇄하였다.

아닌가 하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골까르당이 힘을 시위하는 배경엔 당 총재인 바크리의 풍부한 자금력과 조직력이 뒤에서 받쳐 주고 있으며 향후 바크리의 기업왕국이 순항하는데 최대 걸림돌로 간주되는 스리 물리야니 재무부장관의 제거가 그들의 최종 목표일 수 있다. 국정조사위가 막판에

도달할 때까지 골까르당의 태도가 요지부동하자 SBY는 바크리의 주력 기업군인 깔뎀 뿌리마, 아루푸민, 부미 리소시스사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를 지시한다. 이에 반응하여 2월 14일 짜께아스 자택을 찾아온 바크리를 향하여 SBY가 국정조사에 관한 골까르당의 연정 이탈 문제를 지적하자 바크리도 국정조사와 세무조사 문제는 별개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SBY는 이제 바크리에 국한하지 않고 국정조사위에서 강경한 자세를 보인 골까르당 간부들에게 총구를 겨누고 있다. 국정조사위원장인 이드루스 마르함(Idrus Marham) 뿐만 아니라 당 원내대표인 노반또(Setyo Novanto)의 과거 비행을 들추는가 하면 2월 22일엔 골까르당

출신의 리아우 군도 주지사인 이스멧 압둘라(Ismeth Abdullah)를 전격 구속하며 전방위 압력을 가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골까르당과 결별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하여 원내에서 비슷한 의석 수를 보유하고 있는 메가와띠의 투쟁민주당과 제휴 로비를 벌이고 있다. 이제 막바지로 치닫는 국정조사가 3월 초면 막을 내리도록 되어 있다. 우리 한인사회도 지루한 퍼즐게임 같은 국정조사가 속히 종결되어 G20 회원국이며 잠재력의 국가 그룹인 MAVINS의 일원으로서의 인도네시아가 하루 빨리 정상기조를 되찾아 힘찬 경제발전의 나래를 펴기 바랄 뿐이다.

한인뉴스 정기구독자 모집합니다.



한인뉴스는 보다 많은 교민들에게 정기적으로 한인사회의 소식과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정기구독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교민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정기구독 신청 방법

하기 한인뉴스 계좌번호에 정기구독료를 납부하시고

1. 성명(한글 / 영문)
2. 주소
3. 연락처(회사나 자택 / 핸드폰 번호)
4. 구독료 납부 영수증을

팩스: 021-526-8444 나 이메일: haninnews@naver.com
로 보내주시면 정기구독 신청확인서와 함께 1년간 한인뉴스를 발송해 드립니다.

정기 구독료 (1부/1년)

- JABOTABEK : 30만 루피아/년
- 기타 지방 : 40만 루피아/년

계좌번호

- A/C No : Bank Woori Indonesia
DDA-913-014112 (Rp 계좌)
- Name : HANINEWS Fax : (021) 526-8444



忍 컴퓨터

모두가 인도네시아 생활경력이 각각 다르시겠지만, 특히 한국에서 초고속 인터넷을 열심히 사용하시다 오신 분들은 대부분 인터넷에 참을 인(忍)자 사용하여 인터넷 사용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회사에서 전용선을 사용하시는 직장인들은 아주 조금(?)의 예외로 하고요..

필자도 처음 인도네시아 와서 전화 모뎀 돌아가는 거 보고는 한동안 어이없어 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거의 대부분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하고 계시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속도가 안 나오는지, 어느 집은 동영상도 본다는데 우리 집은 메일 하나 보려면 커피한잔 다 마셔도 화면이 안 뜨니 속 터질 노릇입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로 메일을 잘 받아 볼 수는 있는 건지 아니면 뉴스나 동영상도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원래 안 되는 건지 뭐 좀 알아야 기다려도 기다릴 텐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인터넷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인ترنت 방식

인터넷을 사용하고자 하는 장소까지 어떤 형태로 오느냐에 따라서 유선, 무선으로 구분합니다.

우리 집 아니면 우리 회사까지 또는 내 컴퓨터까지 오는 인터넷이 유선으로 오면 유선인터넷이고, 선 없이 핸드폰처럼 오면 무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선 인터넷

보통 speedy 라고 하는 서비스, 지역 cable tv 업자가 제공하는 지역 cable 인터넷 서비스는 유선 인터넷 서비스입니다. 무선인터넷보다는 안정적인 서비스이긴 하지만, 사용하는 회선 즉, 전화선이나 케이블의 상태에 따라서 속도의 차이가 나는 게 단점입니다.

무선 인터넷

자주 들으시겠지만 3G, 3.5G 방식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선 인터넷이라고 합니다. 간혹 사무실 안에서 아니면 커피숍, 공항, 요즘엔 골프장 클럽하우스에도 되는 WIFI 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것도 무선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이런 유,무선 방식이 혼재되어 사용되기 때문에 의미를 나누는 것 자체가 별로 중요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일반 상식으로 사용하시는 인터넷이 유선일까 무선일까 만 알고 계셔도 좋을 듯 싶습니다.

인ترنت 속도

속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좀 생소하지만 컴퓨터에서 말하는 데이터 단위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 나서 속도 이야기 하겠습니다. 컴퓨터 전반에 걸쳐서 사용하는 단위니까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비트 < 바이트 < 킬로바이트 < 메가바이트 < 기가바이트 < 테라바이트

비트 (bit)	비트는 이진법으로 나타낸 수를 뜻하는 'binary digit' 의 줄임 말 입니다.	
바이트(byte)	영문자 하나를 표현하는데 1바이트가 필요합니다. 한 글이나 한자 하나를 표현하는 데는 2바이트가 필요합니다	
킬로바이트(KB)	바이트의 천배	1,024 바이트
메가바이트(MB)	킬로바이트의 천배	1,048,576 바이트
기가바이트(GB)	메가바이트의 천배	1,073,741,824 바이트
테라바이트(TB)	기가바이트의 천배	1,099,511,627,776 바이트

이러한 데이터 양을 나타내는 단위를 속도로 표시하면 그대로 인터넷 속도가 됩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 속도가 1Mbps 라고 말하는 것은 1024KB Bit Per Second 라고 합니다. 즉 초당 1024KB 를 전송한다는 것이지요. 자 그럼 이걸 영화 한편으로 환산해볼까요?

보통 영화 한편이 1 (GB)기가바이트 정도 라고 하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1.0GB = 1,000MB = 1,000,000KB$$

$$\rightarrow 1,000,000/1,000 = 1,000Sec$$

(1GB 는 정확히 표현하면 1,024MB 이지만 이해를 돕기 위하여 1,000MB 로 계산했습니다.) 대략 17분 정도면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런데 정말 1Mbps 를 신청하면 17분 만에 영화 하나를 받을 수 있나요? 물론 그렇게 안되지요.

왜 안될까??

전용선이라고 말하는 서비스를 제외하고 그 외의 서비스는 공유 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전용선도 공유합니다만 약정한 속도 범위 내에서 서비스 하기 때문에 조금은 빠른 것이고 일반 인터넷은 상태가 아주 좋은 상태를 기준으로 속도를 정하기 때문에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는 이야기 하지 않는 것이지요.

공유방식?

우리 집에서 쓰는걸 누구랑 나누어 쓴다는 이야기인가? 이걸 또 뭐 소리인가요? 인터넷 서비스 업체가 서비스 할 때 같은 지역 사람들과 같은 서비스를 받는다는 이야기 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의 파이프 (이걸 1M 서비스라고 보고) 안에 여러 사람이



김 신
IT Engineer
kmsms007@gmail.com

사용하게끔 만들어 놓은 것인데 사용자가 많아지는 시간에는 정해진 파이프 안에 사용자가 많아지면서 속도가 느려진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러니 퇴근시간, 늦은 밤, 아니면 새벽에는 잘 되던 게 낮에는 잘 안 돌아가는 경우가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원래 약정한 속도를 지켜주어야 하지만(하나의 파이프 안에 받을 수 있는 최고 고객 수), 사용자의 급격한 증가 및 회선의 노후화 등의 제반 여건 부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해결책은?

이 부분이 가장 어렵네요.. 현재로서는 인터넷 서비스 자체의 질적 수준이 올라가야 하는 상황이라 일단 참고(忍) 기다리는 수밖에는 없습니다만, 해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해보면서 기다리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필자의 경험으로는 눈에 띄게 개선되지는 않지만 컴퓨터를 이해하고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노력해보시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첫째, 인터넷을 사용하다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을 인스톨 하겠냐고 많이 물어봅니다.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설치를 자제 하는 것이 좋고요. 뭐가 뭔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럼 그냥 인스톨하는 것 보다 설치 안 하는 쪽이 더 좋습니다.

둘째, 바이러스 엔진을 항상 최신으로 유지하여 컴퓨터 상태를 항상 건강하게 유지합니다. 가끔은 이 바이러스 체크 프로그램 때문에 늦어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더 큰 것을 잃지 않으려면 그 정도는 감수 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셋째, 같은 지역 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인터넷 서비스만 좋지 않다고 판단되시면 인터넷 서비스 업체에 정기적으로 개선 요청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물론 회선 자체의 문제, 위성 및 무선 중계기 등의 문제 등 불가항력의 요소가 존재한다면 안되겠지만 서비스 업체 내부에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므로 노력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한가지 더, 인터넷 속도를 올려주는 프로그램도 있긴 합니다만 실제 효과는 사용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서비스 되고 있는 인터넷의 종류는 유무선 포함하여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서비스라 하더라도 지역에 따른 편차도 심하고, 기후 등 외부 영향을 받는 관계로 양질의 서비스를 받는 것이 어렵지만 동 지역에 있는 다른 서비스도 확인하시고 주변에 사용하고 계신 분들께 정보를 입수한 후 사용하시는 것도 비용대비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더 많은 이야기와 정보가 있지만 하다 보니 너무 내용이 방대해지고 지루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최대한 간단하게 적었습니다. 컴퓨터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건강한 이국생활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먼 이국 땅 이곳에서 인터넷이 아니고 정말 INTERNET 을 이용하실 수 있는 그날을 기원하면서...

속도 측정 사이트

http://www.speed.io/index_en.html



Start speedtest 를 누르면 업로드 다운로드 속도가 나옵니다.



테스트한 인터넷은 전용선 1M 입니다. 이정도 속도가 나오면 동영상도 볼 수 있고, 영화 한편 다운로드 하는데 1시간이 안 걸리는 속도입니다. 물론 상태가 좋을 때 기준입니다. 현재 사용하시는 인터넷 확인해보시면 약정에 있는 서비스와 실제 속도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약정 속도는 다운로드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운로드 속도를 100이라고 가정하면 30~40 정도 속도가 업로드 속도입니다.

명창 박노웅선생 초청 판소리 자선 순회 공연



재인니한인문화예술총연합회(이하한인예총)에서는명창박노웅선생(고수임민수선생)을 초청하여 판소리, 민요, 전통악기 연주 공연을 개최합니다. 한국전통 음악인 판소리와 민요(경기, 남도), 전통악기 공연을 통해 교민들에게 우리음악의 정수를 감상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수익금을 불우한 한인동포들을 돕는데 사용합니다.

명칭 : 인도네시아 불우한인동포돕기 판소리 자선 순회 공연

장소 : 자카르타(성요셉성당, 연합교회), 반둥, 족자, 한국국제학교, 기업방문 공연(PT.세림)1회

일시 : 2010년 3월 9일부터 17일 사이(아래의 일정표 참조)

형식 : 정통 판소리와 경기민요, 남도민요와 조은경선생(한인음협 회원)의 가야금 공연

입장료 : 없음. 단 모금함을 설치하여 모금된 기금은 불우한인동포돕기 기금으로 활용.

주최/주관 : 재 인니 한인예총

후 원 : 주인니한국대사관, 재인니한인회, 월드옥타, PT.KMK, 한국부인회, KOWIN, K-TV, 일요신문, 한나프레스

일정 :

일시	장소	기타사항
3월 9일(화) 오후 7시 30분	자카르타 성요셉성당 (021-7884-3782) Jl. Marga Satwa No 1 A Jati Padang Pasar Minggu	- 음악협회 조은경선생 가야금 협연 (장구 반주 이덕기 선생)
3월 10일(수) 오후 3시 30분	PT. SERIM INDONESIA (021-547-6453~6) Jl. Raya Llegok, Desa Cijantra Kec. Pagedangan Kab Tangerang	- 한국인 50여명. 인니인 150여명 - 땅그랑 사물놀이단 협연
3월 11일(목) 오후 7시	반둥 BIS(Bandung International School)강당 Jl. Surya Sumantri (022-201-2671 한인회)	- 주관 반둥한인회
3월 13일(토) 오후 6시 30분	족자카르타 Ruma Makan Korea 대장금. Jl. Palangan Tentara Pelajar Km.08 Yogyakarta	- 주관 족자카르타 한인회
3월 15일(월) 오후 7시 30분	자카르타 연합교회 (021-7279-5625) Jl. Wijaya 1/41, Kebayoran Baru Jakarta	- 음악협회 조은경선생 가야금 협연 (장구 반주 이덕기 선생)
3월 17일(수) 오전10시 10분	한국국제학교 강당 (021-844-4958) Jl.Bina Marga No.24 Kel Ceger Jakarta Timor	- 한국학교 학생을 위한 판소리 교육을 겸한 공연

인니한인문화예술총연합회

Korean Culture Association of Indonesia

어깨동무 카운셀링



어깨동무를 해 드립니다.

가정에서 자녀와의 갈등, 부부 갈등 문제, 대인관계로 마음이 답답하신 분들께 KOWIN(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인도네시아 지회가 작은 힘이지만 짐을 덜어 드리고자 합니다. 상담 전문 교육을 이수한 상담자가 고민 여러분의 전화 또는 방문을 받습니다.

그 외 자신의 성격유형 파악 등을 통해 자신을 더 잘 알고 싶은 분들께도 KOWIN이 도와 드립니다. 남을 알기 전에 나를 먼저 안다면 문제의 절반은 해결됩니다. MBTI(중등 3학년~성인)와 MMTIC(초등 3학년~중등 2학년)를 무료로 검사해 드립니다.

상담문의 및 시간

종류	시간	장소 및 연락처
MBTI 검사(중등 3학년~성인)	매주 수요일 09시~10시	한인회 문화회관 1층
MMTIC 검사(초등 3학년~중등 2학년)	매월 마지막 토요일 2시~4시	한인회 문화회관 1층
전화상담시간 및 전화번호	월~금 09시~17시	021-9826-7921 / 021-9826-7925
개인 면접 상담	월~금 09시~12시	한인회 문화회관 1층
KOWIN 카운셀 교육과정	월 09시~ 12시	한인회 2층

국밥 드세요~



“사랑의 국밥 나누기”

이웃과 정을 나누고 싶은 아줌마들이 따뜻한 국밥을 준비했습니다.

세계 한민족 여성네트워크(KOWIN) 인도네시아 지부가 사랑의 국밥을 짓습니다.

“사랑의 국밥 집” 1호는 땅그랑에 있는 교민교회 식당에 마련했습니다.

고향과 이웃의 정이 필요하신 분은 누구든지 오셔서 맛있게 점심을 드시면 됩니다.

- 언제 : 매주 월요일 ~ 금요일 12시 정오
- 어디서 : 교민교회(땅그랑)
- 무엇을 : 따뜻한 국밥 한 그릇
- 또 : 재활용품과 쌀도 나누어 드립니다
- 누가 : KOWIN 인도네시아 지부 (회장 배정옥, 경제분과 강민정 / HP 0818 0884 9965)
- 그리고 : 온정을 전하고 싶은 동포의 참여도 환영합니다.



인도네시아의 일곱 빛깔 무지개

JIKS 12학년 정예지

인도네시아에 산지 어느덧 19년이 되어가지만, 그 동안 인니 문화를 접한 적은 그리 많지 않았다. 학교에서 CA 활동으로 인니문화반에 가입하여 10회 정도 문화탐방을 했지만 항상 아쉬웠다. 그 외에는 부끄럽게도 바쁘다, 귀찮다는 핑계로 인니 문화를 배우는 일에 소홀했다. 그동안의 태도를 반성하며, 지난 방학 때 사공경 선생님을 따라 따만미니 행사에 참여했다. 로마에 왔으면 로마법을 따라야 하지 않던가. 인도네시아에 사는 이상 인도네시아 문화를 알고 이해해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다.

12월 19일, 저녁 7시쯤 문화탐방 팀은 따만미니 앞에서 모였다. 초등학교 때 이후로 처음 온 따만미니는 많이 변해있었다. 어두워서 제대로 볼 수는 없었지만 언뜻 보기에 더 깨끗해진 것 같았다. 차를

타고 10분 가량 이동해 행사장 Nusa Tenggara Barat 관에 도착했다. 행사장 안에는 천막으로 된 상점들이 바닷, 진주반지, 나무로 된 수공품 등을 팔고 있었다. 이것저것 구경하다가 이현주 선생님과 함께 한국인의 흥정 정신을 발휘하여 마음에 드는 기념품을 싸게 살 수 있었다. 그 다음은 저녁 식사를 위해 이동했다. 문화탐방 팀은 한국 대표로 초청을 받아 온 것이어서 실내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다. 식당 안에는 일본, 필리핀, 방글라데시 등에서 온 VIP 손님들도 많이 있어 줄 서는 것조차도 모두 조심스레 행동하게 됐다.

맛있는 음식으로 배를 든든히 채우고 나니 어느덧 야외무대에서 오프닝이 시작되고 있었다. 곱게 분장한 꼬마 아이들이 악기를 연주하고 춤을 추면서 행사의 개막을 알렸다. 어린이들의 때 묻지 않은 순수함과 티

인도네시아 문화를 찾아서



없는 귀여움은 정말 각국 그 어디를 가도 똑같은 것 같다. 어린이들을 보면서 인도네시아 곳곳에서 일어나는 분쟁과 반목이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무대에서 내려오자마자 다시 천진난만한 장난꾸러기들로 돌아온 어린 연주자, 댄서들에게 모든 관객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그 날 열린 행사는 특히 바다가 아름다운 7주- Nusa Tenggara Barat, Nusa Tenggara Timur, Maluku, Maluku Utara, Sulawesi Utara, Kepulauan Riau, Bangka Belitung

지역들이 각 지역의 문화를 알리는 춤과 노래를 선보이는 축제였다. 먼저 각 지역 대표들이 나와 홍보영상과 함께 간단한 지역 설명을 하였다. 섬나라답게 모든 지역이 아름다운 바다를 갖추고 있었지만 자연 환경이 서로 달라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NTT에는 3가지 색을 가진 바다와 세계 최대의 도마뱀인 코모도가 있고, Bangka Belitung의 해변은 아시아의 최고로 손꼽힌다고 한다. 해변이라고 다 같은 해변이 아니었다. 석양 무렵 배에서 생선을 끌어내리는 어부들의 실루엣은 오랫동안 나를 사색하게 만들었다. 하얀 모래밭과 인천대교 같은 멋진 다리도 있었다. 엄청난 수와 종류의 물고기를 가진 Maluku 는 인도네시아 어획량의 15%를 차지한다고 하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풍부한 해양 자원과 아름다운 바다. 역사의 아픔으로 바다색은 저리도 깊어진 것인가. 알고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풍부하고 다양한 인도네시아의 자원에 감탄하며 첫 무대인 NTB지역의 뚜답 댄스를 관람했다.

뚜답 댄스는 우리나라의 태권도와 비슷한 동작의 안무들로 짜인 춤이었다. 옅은 파랑 색의 호두까기 인형 옷을 입은 댄서들이 경쾌한 음악에 춤을 추는 것을 보고 있으니 저절로 흥겨워졌다. 가장 관심 있게 보았던 무대는 NTB 지역의 여자들이 검은 색 드레스를 입고 추었던 춤이다. 신비로운 음악과 매혹적인 동작은 보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마력이 있는 듯 했다. Maluku 지역은 대체로 복장의 무늬와 장식이 거의 비슷해서 춤보다는 다양한 악기로 연주되는 독특한 소리가 더 두드러졌다. 이어서 여가수 3명이 잔잔하고 부드러운 지역 노래를 선보였는데, 지역만의 노래가 따로 있을 만큼 Maluku 사람들의 자부심과 긍지가 대단히 높다는 것을 느꼈다. Bangka Belitung 은

색다르게 이슬람교의 기도를 노래로 불렀다. 이슬람 신자들의 기도문을 노래로 불렀는데, 평소 확성기를 타고 울려 퍼지던 기도 소리와는 확실히 다르게 호소력과 열정이 넘쳤다. 이 지역의 춤은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래서인지 음악과 복장들이 모두 다 중국풍이었다. 하지만 다른 나라의 문화를 본받아 자기들만의 색으로 재구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이런 것이 사회문화 시간에 배운 문화 발전인가 보다. 문화



발전은 우리들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며 인류의 미래를 지켜준다고 한다. 인도네시아의 앞날에 무지개가 펼쳐지리라는 예감으로 나는 들뜬 기분이 되었다.

이 밖에도, 그 날 내가 알게 된 인도네시아 문화의 특색과 미(美)는 일일이 다 적을 수 없을 만큼 많다. 다른 사람들도 조금만 관심을 갖고 주변을 둘러보면, 후진국이라는 강박관념과 편견 속에 가려진 인도네시아의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삶이 허무하게 느껴진다면 무지개를 연상시키는 7주의 바다를 보며 사색에 잠겨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인도네시아의 강렬한 태양과 역사의 아픔까지 날려주는 바닷바람은 우리에게 위안을 줄 것이다.

비 온 뒤에 떠오르는 무지개는 일곱 색깔이 모여서 그토록 아름답고 눈부신 것일까? 오늘은 인도네시아 일곱 지역들이 모여 각각의 색으로 눈부시게 빛난 날이었다.

177회 한인회인니문화연구회탐방

일시: 3월 17일 수요일 오후 4시 - 6시

집결지: Cilandak Town Square 스타벅스

탐방지: Museum Harry Darsono

연락처:

신유희 0818-708-228 / plentyhoki@yahoo.co.kr

사공경 0816-190-9976 / sagong@hotmail.com

178회 탐방 : 4월 초 탐방지 미정

179회 ~ 181회 탐방 :

족자/ 4월 20일 예정 2박 3일 탐방

제2회 한인회 인니문화연구회 열린강좌

-천년의 미소, 언덕 위의 부처님-

강사: 자림스님

주제: 보로부두르와 불교

일시: 2010년 3월 13일(토) 11:00 - 13:00(강의, 질문, 다과)

장소: 한인회문화회관(도서관)

후원: 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인도네시아, 한국차의 미래는?

전세계 도요타 리콜 파문에도 불구하고
상상할 수 없는 인기몰이의 일본차

낮은 인지도에 비해 비싼가격으로
교민에게조차 외면받고 있는 한국차

다음은 지난 2월에 만난 인도네시아 현대자동차 대표
용키(Jongkie Sugiarto)씨와의 대화를 정리한 것이다.

“인도네시아 차량 구매자들은 구매 후 충실한 애프터서비스와 보증, 확실한 중고판매가에 대해 가장 큰 관심을 보입니다”. 인도네시아 현대자동차(Hyundai Motor Indonesia, 이하 현대차)의 대표인 용키(Jongkie Sugiarto)씨는 지난 2월 버카시 현대차 공장에서 한인뉴스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현지 차량구매자의 구매성향에 대해 설명했다.

용키씨는 현지인의 구매성향에 대응하는 On time or free 시스템을 통한 애프터서비스 보장 및 기본 3년 차량품질보증(H1은 기본 5년 보증), Buy Back 프로그램과 자사 중고차매매시스템인 Auto Safe를 통한 중고차 매수 및 매매 등을 통해 현대차 마케팅에 충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현재 현대차는 인도네시아 자동차시장 점유율 1%를 밑도는 저조한 실적을 보이는 등 구매자의 구매심을 쉽게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현대자동차(Hyundai Motor Indonesia)의 대표인 용키(Jongkie Sugiarto) 씨가 버카시에 위치한 현대차 H1 조립 생산 라인을 점검하고 있다.

용키씨는 그 이유에 대해 우선 일본차의 아성을 꼽았다. 1995년 현대차가 인도네시아에 설립되기 25년 전 이미 인니 시장을 선점한 일본차는 현재 시장점유율 95%에 육박하는 절대강자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 미국발 도요타 리콜 파문으로 전세계가 출렁거리는 지금도 현지에서 일본차의 인기는 전혀 타격을 받고 있지 않다. 용키씨는 인니인은 일본차량의 확신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라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일본차에 비해 현저히 낮은 현대차 인지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차량가격’을 지적했다. 일본차 특히 도요타는 가장 차량의 경우 100% 현지 생산체제를 통한 가격경쟁력 강화 및 전국 곳곳의 확실한 서비스체계 구축으로 철저한 소비자의 신뢰를 쌓아오고 있고 인도네시아 국민차라 명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성장했다.

AZera(한국명: 그랜저), 소나타, 엘란트라, 투산, 산타페 등 완성차를 수입하고 있는 현대차는 현재 1일 1교대 근무시 연간 1만 4천대에 이르는 차량을 생산력을 보유하고 있고 현대차 버가시 생산공장에 현재 'Avega'(한국명: 뉴엑센트)와 'H1'(한국명: 그랜드 스타렉스)를 조립방식을 통해 생산해 냈으므로 일본차와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있지만 내수 부품 사용 비중이 낮아 가격경쟁의 탄력을 저조한 상태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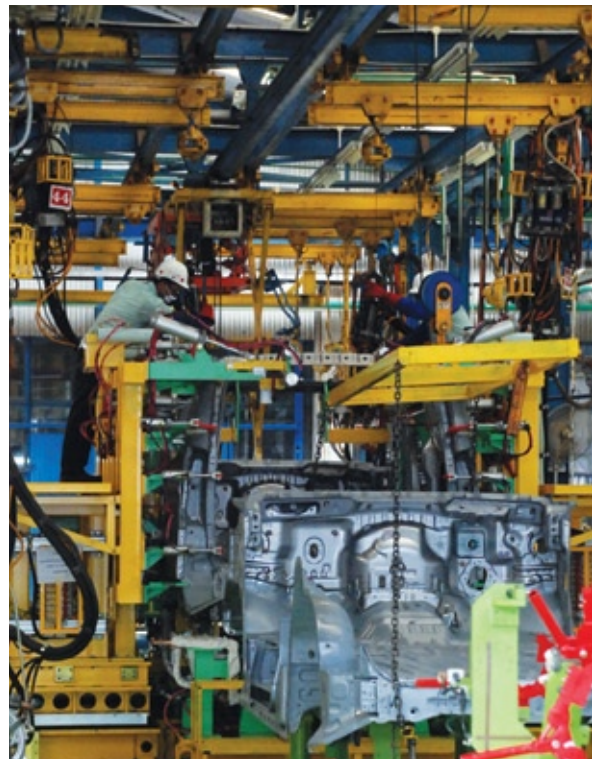
용키씨는 이어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여전히 거대시장 구매자에만 집중된 차량생산을 지적하며 아세안 지역 국가에 특화된 차량이 없는 점이 현지 구매자들을 끌어들이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임을 지적했다. 그는 다목적차량(MVP)과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가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인기를 끌고 있으며 말레이시아에서는 세단이 태국에서는 픽업차량이 선호되고 있음을 예로 들며 아세안 각 국가의 선호도에 맞는 차량 개발이 한국현대차에서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에만 국한되지 않고 아세안 전 지역을 포괄하는 과감한 투자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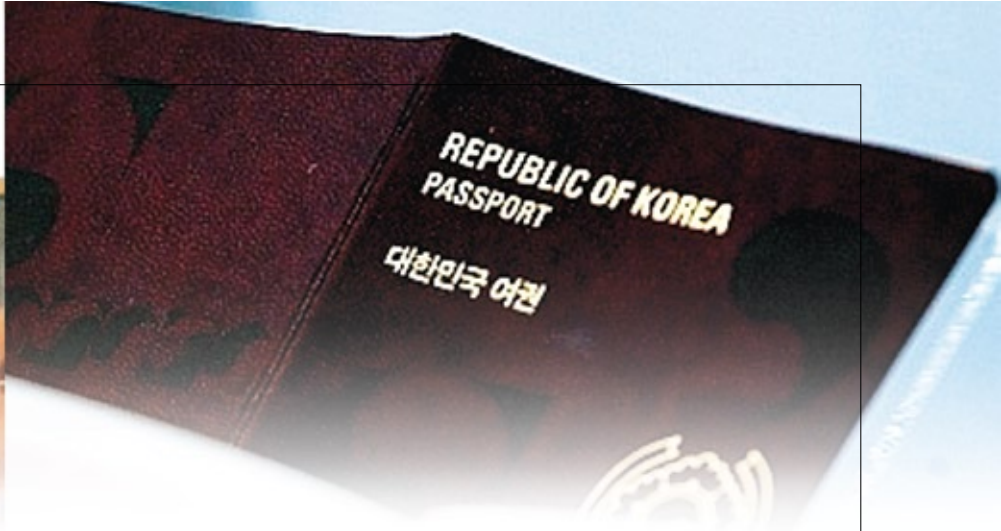
그는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가 주축이 되는 아세안에 '한 국가 한 차종 생산'으로 특화된 조립공장의 조속한 투자가 이뤄지고 난 후 AFTA(아세안 FTA) 저관세 수입 방안을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결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인도네시아 및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아세안 국가에 생산기지를 두고 완성차 및 차량부품등을 AFTA를 통해 5% 이하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일본차 및 외국차에 비해 현대차의 경우 45% 이상의 완성차 수입관세가 부과돼 가격경쟁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일본차 보다 비싼 한국차를 누가 사겠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용키씨는 현재 자체 조립생산중인 H1 차량을 올해 6월 아세안 국가에 수출할 계획이다.



한편 용키씨는 2억3천만 명에 이르는 인구를 보유한 인도네시아 내수시장은 아세안 국가 중 가장 잠재력 있는 시장으로서 향후 5년 내 현재 연간 50만대 규모의 인니 내수 자동차 시장이 100만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그는 현지에 대한 빠른 투자결정이 이뤄진다면 아세안 시장의 한국차 부상과 인도네시아 시장 점유율도 5%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인터뷰: 김영민 한인뉴스 편집위원>





①

개정 국적법의 진실과 오해

2009.12.29 국회에 제출된 개정 국적법의 이중(복수)국적제도에 대하여 일부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교민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개정 국적법은 현행 국적법의 단일 국적주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면서 출생, 국제결혼, 외국인 우수인재의 우리국적 취득 등과 같이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열거적으로 이중(복수)국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국민이 자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는, 외국국적 취득과 동시에 우리 국적이 자동 상실되도록 함으로써 단일 국적주의 원칙을 규정하는 한편, 이중(복수)국적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유형으로

첫째, 출생으로 출생지 국가의 국적을 부여받는 경우[선천적 이중(복수)국적자],

둘째, 국제결혼, 국제입양 등과 같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후천적 비자발적 이중(복수)국적자],

셋째, 우리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또는 우수 외국인재 등이 우리국적을 취득한 경우 등

이 있으며, 이러한 이중(복수)국적자는 법령이 정한 절차를 이행함으로써 이중(복수)국적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당지에 거주하는 대다수의 교민 여러분은 이중(복수)국적 부여 대상이 아님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당지 국적을 취득하고 우리나라 국적이 상실(기본관계증명서 또는 구 호적부에 기재)된 자는 5년간 유효한 재외동포(F-4) 비자를 받을 수 있고, 동 비자로 국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거소신고를 한 때에는 국내취업, 부동산 매입, 은행거래, 의료보험 등 거의 모든 국내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당지 국적을 취득하신 교민 여러분께서는 재외동포(F-4)비자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개정 국적법 관련 상세한 정보는 대사관 홈페이지(<http://idn.mofat.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주인도네시아대사관 영사과
(☎ 520-8950)



재외동포(F-4) 비자 발급 안내

대사관은 우리국적을 상실하고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및 그 자녀(외국국적 소지자에 한함)에게 재외동포(F-4) 비자를 발급하고 있음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 우리국적을 상실하고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 위 대상자의 자녀로서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우리국적과 외국국적을 동시에 소지하고 있는 이중국적자는 제외)
- ※ 다만, 병역기피 목적 또는 우리나라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국가이익에 위배되는 경우는 제외

2. 제출 서류

- 사증발급신청서(사진 1매 부착), 여권 및 여권사본(인적사항란) 각 1부
- 기본관계증명서, 구 호적부 등 우리국적 상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자녀는 직계존비속을 입증하는 서류(출생증명서, 주민등록부 등) 추가

3. 비자 종류

- 유효기간 5년, 체류기간 2년의 복수 재외동포(F-4) 비자 발급(수수료 80불 상당)
- ↳ 유효기간 경과시 동일한 조건으로 재발급 가능

4. 비자 내용

- 5년간 별도 비자없이 수시 출입국 및 매회 입국시 2년간 체류 가능
- 90일 이상 체류 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거소신고는 필수 사항
- ↳ 거소신고 후 매회 2년씩 체류기간 연장하여 계속 체류 및 체류기간 범위내에서 수시 출입국 가능
- 거소신고한 경우에는 국내취업(단순노무 및 사행행위 등 제외), 부동산 매입, 은행 거래, 의료보험 등 자유로운 국내 활동 가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남아협의회 인도네시아 지회

주소: Korea Center Building, Jl.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전화: 021) 520 6655 / 팩스: 021) 520 3535

지회장: 김광현(asokapk88@gmail.com)

간사: 안선근(ali1212@centrin.net.id)

편집담당: 김문환(mhkasindo@cbn.net.id)

평통 칼럼

이게 뭘니까!!

얼마 전 업무 차 태국으로 출장을 다녀 왔습니다. 한국, 태국 모두 신종플루 때문에 난리가 났던 터이지만, 중요한 약속이 있어 도저히 미룰 수 없었던 관계로 두려움(?)을 무릅쓰고 태국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태국의 방콕이라는 곳은 아시아의 허브라고 할 정도로 많은 국제기구와 수많은 외국관광객들로 붐비는 그야말로 국제적이 도시인데, 예전에는 한 달에 몇 번 정도 출장을 다녔던 익숙한 지역이어서 편한 마음이었지만, 이번에는 왠지 여러 가지 상념이 귀국하는 날까지 제 마음을 어지럽혔습니다.

방콕 현지에 있는 관계자의 이야기로는 태국에 있던 북한식당이 모두 철수를 했습니다. 제가 방콕으로 떠나기 전 어느 일간지에 태국 북한식당 철수 문제가 단신으로 소개되었는데 그 연유를 물어보니, 이유는 명확하지 않지만 현지에서도 철수에 대해 의아해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많은 관광객들이 으레 들르는 주요 관광코스 중 하나였던 북한식당의 철수가 그들 내부의 문제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무척 궁금했습니다.

업무를 마무리하고 귀국하기 위해 공항에 도착하여 남은 시간이 많아 공항전광판을 보며 각국항공기의 이착륙 상황을 흥미롭게 보고 있는데 전광판 옆 안내 부스에서 기러기 문양의 고려항공을 발견하였습니다. '아, 고려항공이 오늘 출발하러나?' 약간의 기대감을 갖고 전광판을 살살이 뒤졌지만 공항안내소의 대답은

도희윤/선진통일교육센터 대표

1주일에 한 번 운행을 한다고 합니다. 내가 출발하는 날에만 해도 한국의 항공기들은 오전, 오후를 나누어 몇 대씩 정신 없이 날아다니는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기인 고려항공은 아시아의 허브 국가에 고작 1주일에 한번씩 오간다고 하니 같은 민족의 입장에서 왠지 씩씩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항 출입국을 통과하여 잠시 들른 면세점에서 미국, 일본, 중국, 중동, 유럽 등 온갖 인종들이 군상을 이루어 밀려가는데도 동족이라는 북한 여행객 한 명을 발견하지 못하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과연 통일이란 무엇일까, 북한이라는 나라는 정말 어떤 곳일까. 우리가 통일, 통일하기 전에 북한 주민들도 보다 자유롭게 다른 나라를 방문하고 공항 면세점에서 소중한 가족이나 벗들을 위해 작은 선물하나 사 들고 기분 좋게 발걸음을 옮기는 북한 주민들의 모습을 외국공항에서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한국에 돌아와 방콕 공항에서 느꼈던 감정을 주위 분들에게 이야기 했더니, "도 대표 정신 차리시오. 북한은 자기 나라 안에서든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못하는 거 모르시오. 북한주민들의 외국여행? 나 원 참. 그럼 우리가 인권 운동할 필요가 없지 쫓쫓....."

그날 밤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휴전선 남쪽으로는 모든 것이 당연한데 휴전선 저 너머에는 그런 꿈조차 불경스럽다니요. 도대체 이게 뭘니까?

북한의 4대 명산, '백두·금강·묘향·칠보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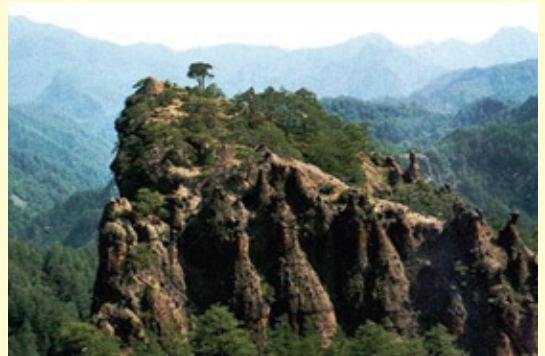
산악지대가 폭넓게 펼쳐져 있는 북한은 남한만큼이나 명산이 많다. 가장 유명한 산으로는 민족의 성산으로 부리는 백두산을 꼽을 수 있다. 양강도 삼지연군과 중국의 자린성 경계에 있는 백두산은 해발 2,744미터로 한반도에서 제일 높은 산이다. 장백산맥의 주봉으로 최고봉은 장군봉이다. 정상에는 천지라는 칼데라호가 있다. 휴화산으로 신생대 제3기부터 활발히 진행된 화산활동으로 현무암질 용암이 대량 유출돼 넓은 백두용암대지가 만들어졌다.

북한 강원도에 위치한 금강산은 그 아름다움이 예로부터 국내외로 유명했다. 계절에 따라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사시사철 경치가 수려하다. 오랜 기간 지질활동과 풍화작용으로 생긴 기암괴석 및 폭포, 바다를 낀 지역으로 이뤄졌으며 흔히 내금강, 외금강, 해금강으로 나뉜다. 각양 각색의 크고 작은 폭포들이 많은데 그 중 4대폭포로 이름난 구룡연계곡의 구룡폭포와 비봉폭포, 구성계곡의 옥연폭포, 석문동계곡의 십야폭포 등이 있다. 또 관동팔경의 하나로 이름난 삼일포가 있다.

묘향산은 평안북도와 자경도의 경계에 솟아있으며 향산군, 녕원군, 희천시 지역의 넓은 지역을 포괄하고 있다. 11세기 초부터 산세가 기묘하고 향기를 풍기는 산이라 하여 묘향산이라 불렸으며 예로부터 한국 5대 명산이자 조선 팔경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함경산맥 동남부에 길쭉하게 형성되어 있는 칠보산은 일곱 가지 보물이 묻혀 있다는 뜻이다. 칠보산은 기묘한 산세와 바위들, 해칠보의 절경으로 인해 '함북금강'으로 일컬어진다. 주봉인 오봉산은 말 그대로 봉우리가 다섯 개인데 봉우리마다 기이한 형태를 하고 있어 각기 이름이 붙어져 있다. 칠보산 일대에는 보존자원 800여종, 동물 80종, 천연기념물 10종이 있으며 약밤나무, 정향, 돌가시나무 등 희귀식물이 자생하고 있다.

사진 위 부터, 백두산, 금강산, 묘향산, 칠보산



인터뷰

이기택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2010년 2월19일 국방일보>

- 최근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도대체 북한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종잡을 수 없게 만드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의 대남 전략은 과거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강은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더욱 심하게 느껴지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악화로 북한 권력내부가 제대로 통제되지 않기 때문에 군부는 군부대로, 당은 당대로, 대남접촉창구는 창구대로 제각각 나서기 때문에 냉온탕을 오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하나는 과거 정권과 달리 남북협력에 전략적 상호주의를 적용해 온 이명박 정부를 길들이기 위한 목적으로 강은 양면전략을 구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서해안에서는 해안포를 발사하면서 ‘쌀을 달라’ ‘금강산·개성관광을 재개하자’고 손을 내미는 게 그렇습니다. 식량난과 화폐개혁 실패로 경제사정이 급박한데 이명박 정부가 원칙적 입장을 고수하자 초조해진 것이지요. 하지만 이런 전략은 우리 정부의 단호한 입장으로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 헌법 개정, 화폐개혁, 후계자 문제 등으로 북한 내부 사정이 어지러운 것 같은데 현재 북한 내부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북한의 위기는 두 차례의 핵실험으로 자초한 측면이 많습니다. 핵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와 봉쇄가 위력을 발휘했고, 중국의 제재 가세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후진타오 중국 주석이 평양을 방문해 대규모 원조를 약속했지만 실제원조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유일한 생명줄이 막힌 것입니다. 또 북한의 대남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가 전략적 상호주의로 전환하자 ‘금단현상’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또 무리한 3대 세습으로 불확실성이 증폭된 가운데 화폐개혁 실패가 치명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북한 주민들은 극한에 도달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 북한의 6자회담에 복귀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과 미국과 중국의 움직임을 보면 가능성이 높습니다. 왕자루이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북한을 방문했고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이 중국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또 김계관 부상이 3월 중에 미국에 간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6자회담을 사전에 조율하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는 북한 입장에서 가장 숨막히는 상황이고 이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진퇴양난인 것이지요. 현재 북한 내부 사정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6자회담에 나와 몸부림칠 것으로 보입니다.”





행복한 아이의 비밀 4

귀 기울이기

- 아이들이 험난한 세상을 헤쳐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

이번 글에서는 아이들에게 일어난 문제를 어떻게 부모가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해 다루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세상은 불공평하고 험난한 곳입니다. 부모들이 아무리 애를 쓴다 해도 곳곳의 그 험한 구덩이를 일일이 메워줄 수가 없지요. 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해서도 안 되는 것은, 사실 아이들이 자기 주변의 까다로운 사람들과 어려운 상황을 접하면서 성숙해지고 독립적인 한 어른으로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아이들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 삼가야 하는 말들을 살펴보고, 그런 후 효과만점인 '적극적으로 귀 기울이기'에 대해 말하려고 합니다. 이 '귀 기울이기'는 부모들이 자녀들의 인생문제를 다루는 가장 긍정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아이들이 피신할 수 있는 '안전한 항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자주 이런저런 문제를 들고 와 도움을 구합니다. 이 때 부모들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두터운 신뢰가 형성되기도 하고 깨뜨리기 어려운 벽이 생기기도 합니다. 다음의 말들은 부모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내는 세 가지 반응인 동시에 마음의 벽을 쌓는 표현들입니다.

과보호 : “어머, 그거 참 안됐구나. 자, 엄마가 다 해결해줄게”

훈계하기 : “쫓쫓 얼마나 못났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가르쳐줄 테니까, 내 말 잘 들어…….”

혼란스럽게 하기 : “어이구, 그랬어? 신경 쓰지 말고 나가서 놀아!”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인가요? 아이를 위해 달려드는 편입니까? 아니면 교훈을 늘어놓든가 화제를 바꿔버리시는지요? 이 세 가지 스타일을 자세히 살펴해보도록 하지요.

과보호

“오늘 어떻게 보냈니?”

“짜증났어요.”

“저런, 왜 짜증이 났어? 이리 와서 말해봐.”

“새로 오신 수학 선생님이 있는데요, 수업 따라가기가 벅차요.”

“아니 어쩔 좋아. 정말 안됐구나. 저녁 먹고 나서 도와줄까?”

“책을 학교에 두고 왔어요…….”

“그럼 내가 내일 학교에 전화해서 교장 선생님께 말씀드려야겠다.”

“어, 왜요?”

“선생님이 수업을 어렵게 하면 안 되잖아, 안 그러니?”

“글쎄요…….”

“난 네가 학교 문제 때문에 고생하는 걸 원치 않는다.”

“어어……?”

혼계하기

“오늘 어떻게 보냈니?”

“짜증났어요.”

“쫄쫄, 넌 어제 맨날 불평만 하니. 나 같으면 누가 편하게 공부만 하라고 그러면 너무 좋을 텐데. 공부하는 게 왜 재미가 없니?”

“그게요, 짜증나잖아요. 멍청한 수학 선생님이 새로 왔는데 말이에요, 너무 수업을 어렵게 해요.”

“선생님을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어? 이 녀석아, 수업 시간에 딴 생각 하지 말고 선생님이 알아듣기 어렵게 말해도 찬찬히 잘 들어야 될 거 아냐. 어찌면 그렇게 참을성도 없이 네 멋대로 하려고 그러니.”

“어휴…….”

혼란스럽게 하기

“오늘 어땠니?”

“짜증났어요.”

“애, 다시 생각해봐. 뭐가 그렇게 나빴어? 도시락 맛있었니?”

“응. 도시락 맛있었어요. 근데 수학이 좀 걱정 되었어요…….”

“애, 네가 무슨 아인슈타인이라도 되니. 엄마랑 아빠가 수학 천재도 아니고. 그깟 일로 기죽지 말고 가서 TV나 보렴.”

“알았어요.”

이 세 가지 예에서 몇 가지 공통점을 눈치 채셨을 겁니다. 부모가 도맡아 얘기한다는 것, 대화가 금방 끝난다는 것. 아이가 진짜 문제에 대해 얘기할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이의 생각이나 느낌은 대화 도중에 무시되고 부모가 지레짐작하여 문제를 ‘해결’해버리거나 혹은 ‘해결되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아이가 말할 기회는 점점 줄어듭니다.

적극적으로 귀 기울이기

“오늘 어땠니?” “짜증났어요.”

“그래, 좀 언짢아 보이는구나. 왜 그러니?” “어유, 수학 선생님이 새로 왔는데요, 어렵게 가르치고 진도도 너무 빨리 나가요.”

“혹시 못 따라갈까 봐 걱정되는 거니?” “네, 이해가 잘 안 가는 데가 있어서 그 부분을 다시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그냥 정신을 집중해서 잘 듣기만 했어도 알 수 있는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음…… 그래서 네 기분은 어땠는데?”

“기분 나빴죠. 다른 애들은 날 놀리고요…… 근데 반 아이들도 이해 못 한 건 다 마찬가지였거든요.”



“그것 때문에 화난 거구나. 그 문제를 너 혼자 질문해서 괜히 혼나고 놀림받고 그래서?” “네, 그런 일로 시선을 받거나 놀림받는 게 짜증나잖아요.”

“또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할 생각인데?” “모르겠어요. 수업이 끝나고 나서 선생님한테 따로 찾아가 모르는 부분을 한 번 더 여쭙 봐야겠죠, 뭐.”

“그게 낫겠니?”

“네, 그러면 애들 때문에 공연히 당황할 필요도 없고요. 저는 사실 선생님이 약간 초조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진도를 빨리 나가신 거겠죠.”

“너는 그 선생님 입장도 이해하고 있구나.”

“그럼요. 선생님이 저희들 때문에 약간 긴장하신 거라고 봐요.”

“당연하지. 너같이 똑똑한 애를 가르치려면 안 그렇겠니?”

“그럼요!”

‘적극적으로 귀 기울이기’의 한 예입니다. 물론 부모들에게 침묵을 지키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이의 느낌과 생각을 인정하고 아이가 곰곰이 생각할 수 있게끔 도와주면서, 부모가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라는 겁니다. 이런 접근방법들을 쓰는 거지요.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문제를 대신 해결(‘학교에 전화하마’) 해주지 않는다.
- 아이에게 어떤 도움이나 정보가 필요한 게 아니라면, 선불리 충고(‘선생님 말씀을 잘 들었어야 했잖아’)를 하지 않는다.
- 아이가 상습적인 불평꾼이 아니라면, 문제의 본질을 흐리거나 회피(‘자, 그건 잊어버리고 TV나 봐. 밥이나 먹든지’)하지 않는다.

적극적으로 귀 기울이기를 잘해내려면 어느 정도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 귀 기울이기 방법에 대해 무척 긍정적입니다. 아이를 언제까지나 행복하게 해

줄 필요는 없으며 또 아이의 문제를 부모가 직접 나서서 해결해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들어주는 가운데 아이를 도울 수 있고, 아이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면서 책임감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이 귀 기울이기를 잘하는 요령은 부모가 ‘우리 아이가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하면, 장기적으로 봐서 아이에게 도움이 될까 안 될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간과 판단력, 이해심을 아이를 위해 할애하면 아이에게 닥친 문제 상황은 훌륭한 학습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씩 부모가 끼어들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자기 방어 능력이 없는 자녀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때는 부모가 반드시 그리고 즉시 개입을 해야 합니다.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그리고 ‘그냥 들어주는 것’ 그 자체로 도움이 될지는 부모 스스로가 판단해야겠지요.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지요? 그럼 먼저 자녀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 자신의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을 빼놓고 말이지요. 앞에서 말하는 아이들의 눈을 들여다보면서 튀어나오려는 말을 잠깐 멈추고 생각과 감정을 다시 한 번 살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 전 순

이전순 씨는 숙명여자대학교 이동복지학과와 대학원을 졸업(이동상담 전공)하고 동 대학원과 청주대학교에서 음악치료학과와 음악치료 전문가 과정 등을 수료하고 아동 및 정신치療자, 노인등의 심리치療 및 상담 전문가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김은미 편집위원의 추천 도서

행복의 조건

저자 조지 베일런트 | 역자 이덕남 | 출판사 프리티어



생애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물론 일반 독자들도 관심을 기울일 만한 생애사 연구 결과가 공개되었다.

하버드대학교에서 진행한 인생성장보고서인데, 여러모로 놀랍고 흥미로운 보고서이다.

첫 번째로 놀라운 점은, 이 저서가 세계 최장기 종단연구라는 점이다.

저자 조지 베일런트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 진행된 성인 발달 연구를 맡아온 미국의 정신과 전문의로, 현재 하버드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이자 보스턴 브리검 여성병원 정신의학분과 연구소장으로 재직 중이다.

하버드대학교 연구팀은 1930년대 말에 입학한 2학년 생 268명의 삶을 72년 동안 추적하면서, 이너시티 집단(서민 남성 456명), 터먼 여성 집단(여성 천재 90명)에 관한 연구까지 흡수하여, 어린 시절부터 죽을 때까지 그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전 과정을 지켜보고 비교 분석했다.

두 번째로 놀랍고 흥미로운 점은, 연구팀이 찾아낸 '행복의 공식'이 일반적인 통념을 뛰어넘는다는 것이다.

연구 대상들이 70에서 80세에 이르면서, 하버드 연구팀은 그들을 주관적, 객관적 건강에 대한 6가지 기준에 따라 '행복하고 건강한 삶'과 '불행하고 병약한 삶' 또는 '조기사망'군으로 분류했다.

그리고 생의 마지막 10년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는지 아닌지는 50세 이전의 삶을 보고 예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놀랐다.

더욱 중요한 것은 행복과 불행, 건강과 쇠약함 등을 크게 좌우하는 것이 그저 신의 뜻이나 유전자가 아니라, 사람이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었다는 점이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부르는 '행복의 조건' 7가지는 타고난 부, 명예, 학벌 따위가 아니었다.

조건들 가운데 으뜸은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성숙한 방어기제)'였다.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은 47세 무렵까지 형성돼 있는 인간관계였다.

나머지는 교육년수(평생 교육), 안정적인 결혼생활, 비흡연(또는 45세 이전 금연), 적당한 음주(알코올 중독 경험 없음), 규칙적인 운동, 적당한 체중이었다.

인구의 '고령화'라는 사회적 난제를 시급하게 풀어내야 할 국가와 무서운 속도로 급증하고 있는 '나 홀로'족들, 그리고 맹목적인 '성공'을 목표로 파괴적인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책이다.



별과 달이 비추는 오지의 마을



평아난 사람들

평아난 마을의 대문은 모두 나무대문이고 넓이는 80cm로 같다. 마침 그 마을에서 응아벤 마살; Ngaben Masal이 있다기에 갔었다.

그들은 왜 죽은이들을 화장을 하는가? 환생 (Renkamasi), 힌두 인들이 가장 확실하게 믿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인간이 네 가지를 거쳐야만 자유로이 환생할 수 있는데 그 네 가지가 불(Api), 바람(Angin), 물 (Air), 흙(Tanah), 이를 뻥짜마하부따(Panca Maha Buta) 라고 했다.

흙에 묻히고 물에 빠가 씻기고 불에 태워지면서 자연으로 인하여 바람을 타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미 죽어 시체를 묻었지만 화장하지 않으면 그 영혼은 아직 이승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아벤(화장)을 해 줌으로 죽은 이에 대한 보답이며 영혼도 자유롭게 저승으로 간다고 말했다. 죽은 영혼들과의 관계도 돈독해진다고 했다.

발리 평아난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집안 '발레당인 (Bale Dangin) 이라는 마루 위에다 두고 장례식 치를 길일을 기다린다. 몇 년 전에는 사망 후 길일이 빠른



김성월

수필가 · 방송 프리랜서
hansol0508@hanmail.net

시일 내에 잡히지 않으면, 얼음으로 싸두거나 포르말린 (Formalin) 주사를 놓아 시체의 부패를 방지하여 보관하기도 했다. 그러나 요즘은 포르말린을 사용하면 경제적으로 부담이 커 하루가 지나면 거의 무덤을 만드는데, 길일을 받지 않고 묻은 무덤은 평평하게 만들어 길일 받은 무덤과 표식을 해둔다고 하였다.

평아난 마을에서는 합동으로 화장할 시신이 55 구나 된다고 했다. 이런 장면을 촬영하자면 으스스하게 밤중이나 새벽에 무덤파는 장면을 찍고 싶다고 했다. 촌장에게 말했더니 평아난 사람들은 아홉시 넘어서는 무덤을 절대로 파지 않으며 조상들이 화낸다고 말했다. 이쯤이면 나는 이미 알고 있다. 그러나 피디는 자꾸 시청률을 운운한다. 인도네시아문화를 따르자니 조피디와 제작진이 마음에 걸리고 제작진을 따르자니 촌장과 마을사람들의 그 순수한 믿음이 마음에 걸렸다. 난 솔직히 평아난 사람들의 말을 듣고 싶었다. 그러나 직접해봐야 속이 시원할 것 같아 나는 제작진을



집안 별로 나눠서 불에타고 있는 시신들

따르기로 마음먹었다.

촌장을 설득하여 몇 사람들을 태우고 밤중에 일단 공동묘지로 갔다. 모두들 차에서 내렸다. 나는 도저히 겁이 나서 내릴 수가 없었다. 차 안에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를 했다. 조피디는 '선생님 기도는 뭘해요.' 하면서 먼저 내렸다. 카메라 불빛이 퍼지고 잘 보이지 않았다. 차 후진등 사용하려고 차를 무덤 가까이 대어 달라고 했더니 운전기사가 무섭다고 하지 않으려고 했다. 참다못해 급한 내가 운전대를 잡았다.

다음 날 아침, 오늘은 정말로 무덤을 파헤치는 날이다. 아침에 만나자마자 조피디가 지난밤에 욕실에서 목욕하는데 등이 갑자기 꺼지더라고 말했다. 방안의 불도 몇 개는 갑자기 꺼지고 말만 들어도 식겁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을에 갔더니 촌장도 어제 밤에 조피디와 같은 시간에 꿈에 묘 주인들이 나와서 왜 무덤을 파는지 화를 내더라고 말했다. 나는 촌장 말들었어야 했는데 오늘 밤에도 또 그런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우스갯소리를 했는데도 조피디는 무서워 울상이었다.

마을 주민들의 55구의 시신을 화장하였는데 뼈바꾸

(Pebaku) 110개를 만들었다. 이때 뼈바꾸 (관)는 시신 하나에 두 개씩 사용되며 모자라거나 더 많이 만들어서는 안 되며 시신 숫자에 꼭 맞게 만들어야 한다. 만약에 시신의 숫자보다 뼈바꾸 하나가 더 많으면 누군가 곧 죽는다는 걸 의미한다고 했다. 뼈바꾸 하나는 시신을 무덤에서 캐내 물로 씻어 화구까지 사용되고 나머지 하나는 다 태운 후 뼈를 모아서 3일 동안 담아 두는데 사용된다.

이번 합동화장식에는 모두 55구가 태워졌으며 그 중 3구는 사망한지 한 달된 시신이였다. 그 시신은 무덤에서

꺼내 곧 화장하는 장소로 옮겼다. 그 외 다른 시신들은 오래됐으며 일 년 이상 지난 무덤에서는 살은 이미 없어졌고 뼈들만 나왔다. 정말 살아있다는 것과 죽었다는 것이 이렇게 다른가. 이렇게 역겨운 냄새를 맡으며 모험같은 이런 일을 왜 하는지 나 스스로에 대한 시간을 잠시 가져왔다. 그들은 바빴다. 머리털이 조금 있던 없던 조상의 해골은 어린 아이 머리 감기는 것처럼 다소곳하게 안고 샴푸로 감기고 나머지 뼈들은 비누로 씻겨 주었다. 그들은 조상님을 목욕시킨다고 말했다.

그런 다음 뼈들은 태우는 곳으로 옮겼는데 집안끼리는 같은 화구를 사용하였다. 또 다 탄 뼈를 골라 담아 흰 천에다 싸고 집안끼리 한 무덤에 같이 묻어 주었다. 그날 땅에 묻는 집안도 있었지만 형편에 따라 3일 동안 마을의 공동장소에 보관한다. 3일 동안 보관하고 지키는 일을 머끄밋(Mekemit)이라 한다. 머끄밋을 지내기 위해 빈 관을 만드는데 아까 사용하고 남은 하나의 뼈바꾸를 사용하는데 이때 흰 천을 깔고 그 안에 시신을 대신하는 나무 조각을 넣는다. 머끄밋을 지키기 위한 풍경은 고스톱대신 카드놀이와 그 외 다른 놀이로 밤을 새운다. 한국의 초상집 분위기와 흡사하다고 볼 수 있다.



평안 사람들은 무덤에서 시체를 꺼낸 후 바나나 나무를 심어 흙으로 다시 덮었다. 그것은 이 무덤은 화장을 하였기에 빈 무덤이며 또 다른 사람의 묘로 사용 할 수 있다고 했다. 쉽게 설명하면 무덤도 리필이 된다 그 말이다. 나는 피지집의 콜라나 다 쓴 삼푸포장지만 리필이 되는 줄 알았는데 무덤도 리필이 된다는 것은 처음 알았다.

평안 사람들은 형편이 어렵지만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 공동화장이라도 해 드리지 이 령게라도 해드리지 않으면 죽어서 조상님 뵈면 면목이 없다고 말했다. 평안 마을에는 특이한 전통문화가 많다. 알몸으로 선인장을 칼과 창으로 찌르는 싸움도 하는데 이걸 그들이 하는 남자 성인식이다.

사기 이메일 급증! 급합니다! 송금좀 해주세요!

교민들이 가입되어 있는 한인단체 및 인도네시아 관련 단체의 이름을 이용해 돈을 송금하라는 사기성 이메일이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사기 이메일의 내용은 주로 유럽여행이나 출장 중 지갑을 도둑 맞거나 잃어버려서 호텔비 및 항공권 구입비 명목이 비용이 급히 필요하니 급히 송금해 달라는 내용이다. 보낸이의 이름(단체명)이 교민들 누구나 알고 있는 이름이어서 그 위험성이 더 커 보인다.

교민들 중 유사한 내용의 이메일을 받게 된다면 이메일을 발송한 단체에 직접 이메일 유포 관련 사실을 알리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길 바란다.

한인미술협회 신입회원 모집

재인도네시아 한인미술협회 (회장 인치혁)이 신입회원을 모집합니다. 관심있는 교민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모집기간 : 수시

회원자격 : 미술 전공자 또는 전시 경력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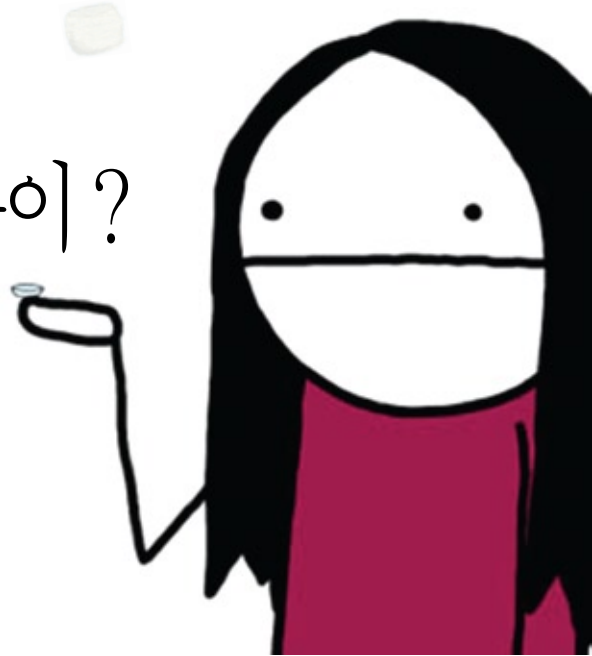
연락처 : 김영민 (0818-916-566)

김수영 (0858-8543-6348)

재인도네시아아 한인미술협회



다 한끗발 차이?



유 춘 강 / 소설가, 카피라이터

얼마 전 공신을 봤다. 물론 딸들과 함께. 그 드라마에선 다양한 부모들이 나온다. 아마 그 모델들은 유별난 사람들이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는, 그래서 쉽게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부모의 모델일 것이다.

드라마처럼 자식과 갈등하는 부모들의 대부분은 기대치 조율의 실패에서 나온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공신의 찬두 이다.

나 역시 아이를 셋이나 키우지만 아이들 앞에서 그들의 미래를 두고 온전히 부모의 욕심을 접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유치원생부터 중학생까지 둔 부모의 입장에서 종종 과욕을 부릴 때가 있다. 최상의 조합을 생각하고 움직이지만 종종 엇박자가 나기도 한다. 부조합이라고 생각 될 땐 걱정한 선에서 끊어야지 그렇지 않다면 스파크가 금방 튀어버린다. 오랜 경험을 통해 얻은 결과이다. 이젠 <거침없이 하이킥, 사춘기를 통과하는 법>이란 책을 만들라고 해도 그럴 수 있을 정도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부족하고, 어렵다. '친구와 부모'사이를 오가는 감

정 설정이 쉬운 일은 아닌 것이다.

요즘 나는 위로 두 아이와 달리 막내 지현이에게는 좀 다르게 접근중이다. 나는 늘 막내에게 건강하게만 크라고 말했다. 신생아 때 크게 아팠던 전력이 있는지라 무조건 건강 위주였다. 그래선지 지현인 유난히 밝다. 공기를 가로지르는 지현이의 웃음소리가 네 귀엔 종달새소리처럼 들리기도 한다. 덕분에 막내 지현이는 세 가지가 없다. 글자 스트레스, 숫자스트레스, 유치원 스트레스가 없다.

지현인 내년이면 초등학교에 가야하는데 아직 한글을 완전히 깨우치지 못했다. 물론 지금 알아가고 있는 중이지만 하지만 쓰기를 통해서가 아니라 동화책을 읽어주면서 아는 글자를 찾게 하는 정도로 당연히 늦다. 대신 놀랍게도 한국에선 유치원 부적응자였던 지현이가 이곳에선 적극적인 명랑소녀로 변신했다. 외국인 친구들과 교우관계도 좋다.

지현이는 밤비노 영어 유치원에 다닌다. 물론 이곳에 와서 도움을 많이 주신 지인의 추천으로 가기는 했지만 처음엔 무척 걱정 했었다. 영어라곤 전혀 할 줄도 모르고 쓸 줄도 모르는 아이였기에.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지현이는 너무도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있다. 한국에서 5살

부터 영어유치원 다닌 친구들보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대화가 된다는 사실을 지난해를 한국에 들어가서 알았다.

어느 날 유치원에서 푸자 맘과 크리스토퍼 맘이 집 전화와 주소를 물었을 때 깜짝 놀랐다. 지현이랑 아이들이 놀고 싶어 하니까 플레이 데이트에 올 수 있겠느냐고. 그 날 이후로 지현인 일주일에 두 번은 크리스토퍼 집과 푸자 집으로 놀러간다. 오후 두 시 반에 시작되는 플레이 데이트는 여섯 시쯤 끝이 난다. 아이를 봐주는 사람이 없는 나로선 매번 지현이를 데리고 가야한다는 불편함이 있기는 하지만 그 정도쯤이야, 지현이 영어연습을 위해선 감수하기로 했다. 그야말로 완벽한 영어실습이니까.

푸자 집에서는 종종 피자파티라는 명목 하에 일박을 하기도 하는데 영어를 구사하는 푸자맘 덕분에 지현이가 영어를 제대로 배우는 것 같다. 해서 푸자 맘과 크리스토퍼 맘이 플레이데이트라고 핸드폰으로 SMS를 하면 영어 공부하는 셈치고 일단 데리고 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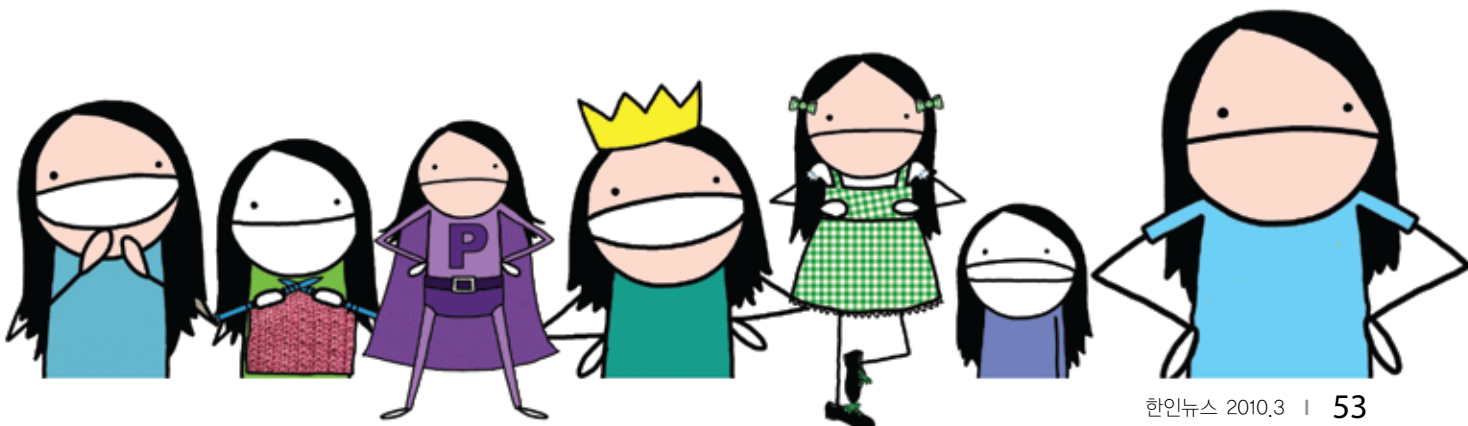
외국아이들 틈에 끼어서 농담하고 껌속말로 속삭이고 있는 지현을 보면 신기할 때가 있다. 영어선생님을 따르든 것도 아닌데 잘 하고 있으니 말이다. 지현이가 하는 일은 유치원에 가서 놀고 일주일에 두 번 크리스토퍼와 푸자 집에 가서 노는 게 전부였는데 1년 전에 비해 장족의 발전을 한 것이다.

생각해보니 그렇다. 한국에서 영어 유치원은 외국인 선생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한국어를 구사하지만 지현이 같은 경우는 그 반대이니 아마 효과가 컸던 것 같다. 암튼 한동안 지현이는 일요일에도 밤비노 유치원엘 가겠다고 할 만큼 좋아했다. 한국에선 유치원 부적응자였던 지현이가 그러는 걸 보면 격세지감을 느낀다. 스스로 배우고 적응하고, 알아가는 지현이가 대견 할뿐이다.

큰애와 작은 애 그리고 막내를 키우면서 내가 깨달은 것 하나는, 과욕은 금물이라는 것이다.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다가 아이가 간절히 원하는 것만 밀어주면 저절로 플러스 효과가 난다. 초등학교까지는 어찌면 운 좋게 부모의 욕심대로 혹은 핸들링 하는 대로 될지 모르지만 그 이상은 아이의 맘에 달렸다는, 고삼 딸을 둔 선배의 말에 요즘 나는 절대 공감한다.

종종 거울을 보듯 자식과 자신을 일심 동체화 시키는 사람을 본다. 아이는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대변해줄 것이며, 아이가 자라가면서 빛나면 그것은 곧 나의 빛남이라고 생각한다.

나 역시 아이를 분신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다. 초등학교 4학년까지 발레를 가르치고 피아노를 배우게 했으며, 바이올린을 가르쳤다. 물론 본인이 너무 원해서. 그때 나는 잠시 착각을 했다. 아이의 욕구와 엄마의 로망이



조화를 이룬 환상의 조합이라고. 하지만 어느 날 수학을 원 때문에 헌신짝 버리듯이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그만 두겠다고 했을 때 딸이 정말 수학을 더 좋아한다는 걸 알았다.

예술을 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었던 나의 꿈은 이제 접었다. 꿈은 창조되는 것이지, 복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것이다. 그동안에 투자한 학원비를 계산해 보니 금액이 만만치 않았다. 쓸쓸하기는 했지만 긴 세월을 사는데 필요한 자양분으로 쓰기 위해 미술을, 음악을 발레를 했다고 생각하려한다. 인생의 어느 한 순간도 그냥 지나가는 것이 없기에 그 순간 역시 언젠가는 가치 있게 내면에 잠재되어 있다 발현되리라 믿는다. 그래도 본전 생각이 나서 좀 아깝기는 하다.

서울에 있을 때 일이다. 막내의 유치원 재롱잔치에서 사회를 맡은 아이의 엄마를 본적이 있다. 그녀는 아이와 본인을 일심동체화 시켜서 맞은편에 앉아서 리모컨으로 조절을 하듯이 입모양으로 따라하고 동작을 같이 하고 있었다. 열정적이라는 생각보다는 안쓰럽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거의 그 순간은 빙의 수준이었다. 심지어 그녀는 아이의 유치원 성적까지 자랑했다. 하지만 그래도 그녀는 늘 허전해보이고, 시니컬해 보였다. 뭐랄까, 나는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야. 괜찮은 대학을 나왔고, 더 빛날 수 있었던 존재야..... 뭐 그런 표정을 살면서 종종 봤는데 그런 류인 듯하다.

혹시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어서 아이의 사소한 일거수일투족으로 채우려는 건지도 모른다. 혼자 있을 때 늘 불만이 서린 눈빛과 우울한 표정도 아마 그래서일 게다. 아이로만 자신을 드러낼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건 슬픈 일이다. 한국에서 큰애 친구 엄마가 한말이 있다.

초등학교 성적은 죄다 엄마 성적이나 마찬가지로. 하긴 시험이 끝나면 유난히 엄마들이 피곤해 하기는 했다.

아직도 지현이는 언니 공책에 가나다라를 겨우 쓰고 있고, 동화책을 들고 제가 아는 글자를 찾아내느라고 고심 중이지만 잘 할 거라 믿는다. 대신 많이 읽어주고, 많이 질문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그리게 하고, 놀게 할 생각이다. 제대로 노는 것만큼 중요한 것도 없으니 말이다. 제대로 놀 줄 알면 멋진 꿈도 꿀 줄 알게 된다.

다 한끗발 차이라는 말이 생각난다. 물론 그건 아이를 손자 손녀까지 포함해 일곱 정도 키워보신 친정 엄마의 말이기도 하지만. 갑자기 큰 애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만났던 1학년 학부모들은 여전히 열정적인지 궁금해진다. 열정은 식고, 타협이 도래하는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중인지, 아니면 여전히 열정적인지. 나는 딸을 예술가로 키워보겠다는 꿈을 예전에 접고 딸의 꿈에 동화되어 가고 있는데 그들은 어떠한지. 그들도 나와 같은지.



바하사



글: 허영순 번역작가(KBS WORLD INDONESIA/OKTN)

자료제공: KBS WORLD INDONESIA/KORINDO.

삶에서 우린 많은 선택을 하고 도전을 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선택을 하지만 현재 어떠한 것을 선택하고 있다고 자각하는 사람은 몇 이나 될까요?

요즘 한국은 동계 올림픽에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것 같습니다. 인터넷 뉴스에도 우리나라 선수들의 선전한 모습을 메인 뉴스로 다루고 많은 사람들이 선수들의 승전 소식을 듣고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임에 자랑스러워 합니다.

결과만 중요시하여 메달리스트에게 스포트 라이터를 맞추던 시대도 지난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어떤 사람들이 그들에게 도움을 주었는지... 어떤 동기로 그들이 선수가 되었는지... 태극 마크를 달고 같이 출전했지만 아쉽게 성공하지 못한 선수들의 비하인드 스토리. 왜 그 종목을 선택 하고 어떻게 도전 했는지 알려 줍니다. 그 만큼 알고자 하는 독자들의 욕구가 달라졌기 때문 인 것 같습니다.

15년 전만 해도 동계 올림픽에 대한 관심은 지금과 같지 않았습니니다. 그저 서양인들이 벌이는 그들만의 올림픽 이고 저희는 관람자 일 뿐 이었는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선수들의 승전 소식에 함께 기뻐하고 응원 하며, 그들이 숭한 도전을 통해 인고의 세월을 통해 오늘과 같은 영광의 날이 있다는 걸 인정 합니다.

도전이란 이런 것 같습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을 이루게 해주는 것... 또 도전은 배움의 연속 인 것 같습니다. 무지 상태에서 도전 하고 싶다는 생각은 나 올 수 없습니다.

15년 전 피겨 스케이팅 선수들은 대부분 서양인들 이었습니다. 우리 나라 사람 중의 누군가는 대회를 보면서 아름답다. 나도 저 모습이 되고 싶다. 도전 하고 싶고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기초가 되었을 거라 생각 합니다. 비록 성과를 못 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배움과 도전으로 인해 존재 가치를 인정 받는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고, 또 이로 인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동포들이 대우 받고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배움을 통해 도전을 배우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이 얼마나 보람된지 되돌아 볼 날이 올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은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도전을 하면서 사시나요?



다 함께 차차차(Mari berjoget)

한국에선 호주제 때문인지 여자가 결혼을 하면 시집을 간다라고 표현하고, 출가외인이라 합니다.

진경이 한 이와 결혼해 그 집의 구성원으로 살아가지만 친정 식구들 문제로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직선적인 성격의 진경이, 이것 저것 마음에 걸리는 잔소리를 하는 정숙(시 고모)에게 난감함을 호소합니다.



Aku terjebak di tengah

Aku bingung harus bagaimana.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Terjebak di tengah

직역 하면, 중간에 끼어서(뎃, 함정, 울가미에 걸리다) 입장이 난처함을 나타낼 때 사용 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거주하면서 자주 겪으셨을 텐데요 다음은 길이 막혀서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을 말할 때 주로 사용되는 문장 입니다. 위 사용해 보세요.

예)

Aku terjebak di tengah jalan karena macet.

막혀서 길 한가운데 매어(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 있어.

Aku terjebak di jalan karena mobilku mogok.

차가 멈춰서 길에 매어 있어.

일반적으로 Mogok은 파업하거나 농성을 할 때 멈추다, 중지하다. 라는 의미의 투쟁을 의미 합니다.

하지만 자동차나 오토바이 등 탈것이 기체 결함으로 길거리에 설 경우

Mobilku mogok di jalan.

차가 길에서 멈춰 버렸어. 라고 표현 할 때 사용 합니다.

윤정의 결혼식에 부주를 얼마나 할꺼냐는 질문에 전 여자친구에게 사기 당해 가산을 모두 탕진한 문근이 본인의 자금 사정이 안 좋다고 핑계대며...



Kau tahu keuanganku sedang menipis.

너도 알다시피 자금 사정이 안 좋잖아.

어근은 Tipis로 얇은, 가는, 가느다람의 의 뜻으로 우선적으로 사용되며. 때때로 빈약한, 불충분한, 뭔가 부족함을 나타 낼때 사용 됩니다.

우리말에도 주머니 사정이 안 좋다. 주머니가 얇아졌다. 라는 표현으로 재정 상태의 불안정함을 나타내듯 keuanganku sedang menipis (자금 사정이 안 좋다(얇아 졌다)) 또는 kantongku sedang tipis. (주머니가 얇다/ 돈이 없다)로 표현 하기도 합니다.



수상한 삼 형제(Keluarga Aneh)

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 지는 현찰이 대부업자에게 빌린 돈 때문에 억울하게 스포츠 센터와 웨딩홀을 억울 하게 뺏기고도 주변 사람 심지어 부모 가족에게도 말 하지 못하고 속을 고 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이상이 충고 합니다.



Abang jangan pendam masalahmu sendiri, cobalah tukar pikiran dengan Umi.

형 혼자 숨기지(마음에 담아두다) 말고 형수 한 데 라도 털어.

Pendam은 숨기다. 감추다 외에도 꾀 묻다 라는 뜻을 가진 Pendam은 뭔가를 깊숙이 숨기다라는 뉘앙스를 갖습니다 숨기다 감추다 라는 외적 표현은 Sembunyi 와 같으나 주로 감정을 억누르거나 생각, 문제 따위를 숨길 때. 어떠한 비밀 따위를 숨길 때 사용 되며, Sembunyi (숨기다/ 감추다)는 감정을 숨기다라는 표현에도 사용되지만 물건이나, 계획등을 숨길 때도 사용 됩니다.

예)

Dia janji akan memendam rahasia itu seumur hidupnya.

그는 평생 그 비밀을 묻고 가기로 약속 했다.

Dia memendam masalah kemarin agar keadaan tak kacau.

혼란스럽지 않게 하기 위해 어제 그 문제를 묻어 두기로 했다.

Dia menyembunyikan rencananya pulang ke kampung kepada teman-temannya.

그는 친구들에게 고향에 돌아갈 계획임을 숨겼다.

Dia menyembunyikan barangku yang sudah usang di gudang.

낡은 내 물건을 창고에 숨겼다.



이명박 대통령의 다보스 포럼 특별연설의 의미와 성과

윤영미(평택대 외교안보학과 교수)

매년 1월 말이면 세계의 시선은 스위스 다보스에 집중된다. 올 해 제40회를 맞는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인 다보스 포럼이 지난 1월 27일부터 31일까지 열렸다. 한국을 비롯해 주요국 정상들과 구글, 지멘스, CNN, BBC 등 전 세계 우수 기업과 언론사 간부들도 참석했다. ‘다보스를 보면 그 해가 보인다’는 말이 있듯이 논의되는 주요 이슈들은 한 해의 세계정치, 경제, 문화의 향방을 결정하게 된다.

올 해 다보스 포럼의 최대화두는 단연코 ‘개혁’이었다. 세계화와 그에 따른 상호의존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현재의 규범들을 과감히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더 나은 세계, 즉 다시 생각하고, 다시 설계하고, 다시 짓자’가 이번 포럼의 화두가 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 G20 정상회의, 주요 과제와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제일 먼저 특별연설을 했다. 특히 오는 11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서 ‘국제경제 규범’을 개혁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가 제공하게 될 것임을 피력하는 좋은 장이 되었다. 더욱이 이 대통령은 G20 서울회의는 위기 이후 세계경제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고, 세계경제 현안을 해결하는 국제협력의 ‘프리미어(premier) 포럼’으로

그 첫 번째 테스트가 될 것임을 강조함으로써 주목을 받았다.

이 대통령은 ‘기반 다지기’로 요약되는 연설을 통해 향후 임무 수행에 대한 구상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우선 이 대통령은 기존 G20 합의사항의 철저한 이행을 강조했다. 주요 선진국과 함께 신흥경제국을 포함하는 G20은 2008년 11월 미국 워싱턴 회의에서 출범한 이래, 작년 4월 런던과 9월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자유무역체제 유지와 금융개혁’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에 합의했다. 따라서 서울회의에서는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세계경제가 나아가야 할 당당한 세계적 협력 방향을 제시하는 적절한 기회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지속 가능한 균형 잡힌 성장 협력체제’를 구체화하고 과제를 행동으로 이행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동시에 금융규제 및 감독 체제의 강화와 국제통화기금(IMF)을 포함한 ‘국제금융기구’의 개혁이 조속히 실현될 수 되도록 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음을 국제사회에 피력했다.

예컨대 11월 G20 정상회의에서는 이와 같은 기존 의제뿐 아니라 의미 있는 새로운 의제 설정에 대해서도 뚜렷한 비전을 제시했다. 세계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고 다른 부가가치를 창조해 낼 수 있는 ‘국제 개발격차 해소,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global financial safety net), 비회원국 아웃리치(outreach : 외연확대) 및 비즈니스 정상회담(summit) 개최’ 와 같은 G20 금융정상회의의 3대 운영방향이 제시되었다. 부연하면 국제자본 흐름의 급격한 변동성으로 인해 각국이 과다하게 외환보유고를 축적하는 등과 같은 신흥경제국과 개도국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개발 어젠다 추가를 통해 쌍무적 금융협력 강화와 지역 간 협력 체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 논의에 대한 의지 또한 제시되었다. 더욱이 정상회담에 참여하지 못하는 비G20 회원국에 대한 외연확대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치기로 했다. 동시에 비즈니스 정상회담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고용 없는 성장’의 활로를 찾는 데 노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사가 되고 있는 대규모 금융기관의 “대마불사(大馬不死: Too-big-to-fail)에 대해 더욱 심도 있는 논의와 대책마련에 힘쓸 것”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국제사회에 ‘위기를 낭비하지 말자’는 말을 언급하면서, “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윤영미 교수

윤영미 교수는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영국의 에버딘대학과 글라스고우 대학에서 국제관계학 석사와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평택대학교에서 외교안보전공 교수직에 있는 윤 교수의 주요 저서로는 〈한미동맹과 신 안보 : 주한미군 재배치 현황과 전망〉 등이 있다.

정착시키기 위해 우리의 역할의 중요성과 더불어 긴밀한 국제공조와 강력한 리더십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을 국제사회에 피력했다. 지난해 한국은 11월 OECD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함으로써 반세기 만에 원조 받는 나라에서 원조 주는 나라가 되었다. 이로써 이번 다보스포럼 연설의 최대성과는 11월 G20 정상회담의 의장국으로서 국제사회의 지지기반을 확대하는 계기를 성공적으로 마련했음은 물론이고 우리의 개발정책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의 위상과 역할을 한 단계 드높이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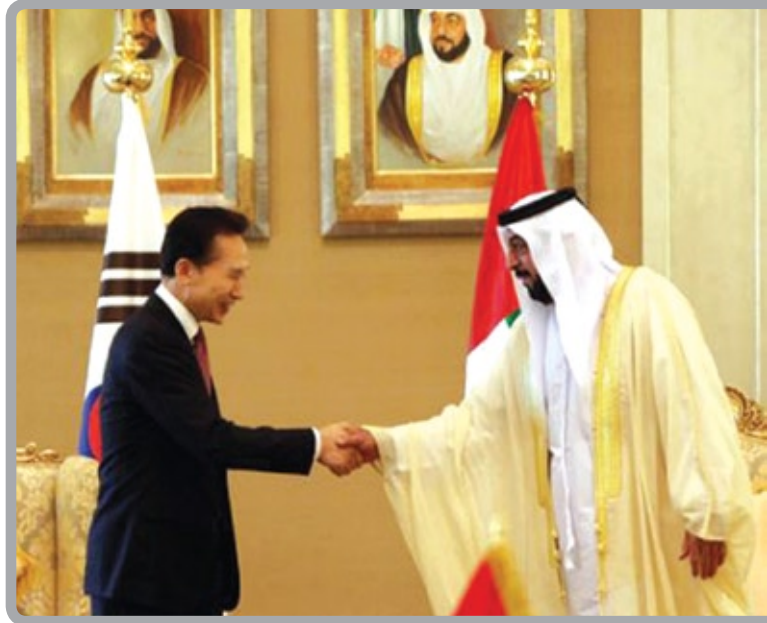
이명박 정부 출범 2주년 외교 성과와 과제

조운영(중앙대학교 교수, 국제정치학)

‘세계로 향하는 글로벌 코리아를 위하여’ 실용외교를 통한 국익의 극대화를 천명한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2주년이 됐다. 출범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이념을 넘어 실용이란 기본 원칙아래 한미관계를 미래지향적 한미동맹으로 발전시키고 동아시아국가들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기반으로 정부는 해외평화유지활동(PKO) 및 공적개발원조(ODA) 확대를 통한 국제사회 기여외교 강화 등을 구체적 목표로 정했다.

그러나 사실 출범 초에는 이명박 정부의 ‘글로벌 코리아 외교’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상당부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 이명박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여야만 했고 상대적으로 외교에 대한 노력은 미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또한 미국에서는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으로 보수 성향의 이명박 정부와 꺾끄러운 관계로 한미동맹이 악화될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었다.

이명박 정부의 외교정책을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른 감은 있지만 임기 반환점을 조금 앞에 남겨둔 지금, 당시의 우려를 무색케 하는 외교 성적표를 볼 수 있다. 우선 한미동맹은 오히려 전략적 동맹관계로 격상되어 정치·경제·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통한 전략적 동맹관계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올해에는 양국의 외교와 안보의 수장들이 한미 간 회의를 통해 전략동맹 내실화를 추진할 예정으로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2009년 11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사무국(DAC)의 2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DAC 가입을 통해 한국은 ‘원조 받는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역할이 바뀌는 첫 사례로 인정받으며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 더욱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 더욱이 2010년을 공적개발원조(ODA) 선진화 원년으로 선포해 대외원조를 통한 기여외교를 강화하여 원조규모를 2009년 국민소득 대비 약 0.11%에서 2015년 까지 0.25%로 늘릴 계획이다.

무엇보다 오는 11월 우리나라에서는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국제외교 이벤트인 G20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미국이 세계대전을 종결짓는 유사 이래 최대 규모의

샌프란시스코 회의를 통해 초강대국으로 등극했듯이 한국은 G20 정상회의를 통해 국가브랜드와 글로벌 리더십을 크게 제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한국이 G20 정상회의의 좌장역할을 맡게 된 배경에는 글로벌 경제위기를 가장 빠르게 극복한 모범국가가 의장국이 되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공감대와 함께 우리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해 말 400억달러 규모의 아랍에미리트 원자력 발전소 사업자로 선정된 것은 이명박 정부의 최대 외교적 성과중 하나로 대통령의 전략적 리더십과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자원 외교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UAE 원전수주는 우리나라가 미국, 프랑스, 캐나다, 러시아, 일본에 이어 세계 6번째 원전 수출국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200억달러의 수출효과와 함께 연인원 11만명의 고용효과가 있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의 글로벌 코리아 외교가 성과를 내고 있는 배경에는 이제 우리외교가 한반도가 아닌 세계를 지향하고, 보편성 및 미래지향적 정책기조를 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명박 정부의 외교는 지난 10여 년간의 외교정책이 갖고 있던 문제점에 대한 자성에서 출발,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준다. 그동안 북핵문제에 발목이 잡히고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강한 집착으로 한국의 외교는 한반도와 동아시아라는 틀 안에 갇혀 있었다. 그러나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이제는 세계로 미래로 뻗어나가는 외교만이 우리의 평화와 번영을 보장할 수 있다.

하지만 세계적 금융위기, 북한의 불확실성 등 점차 예측이 어려운 ‘급변환의 시대’를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한국 외교의 비전과 목표가 보다 명확하고 이를 위한 국가전략이 더욱 구체화되어 실현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확립된 국가비전과 전략으로 국가이익과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주도적 중견국가의 달성은 무엇보다 정책결정자의 외교적 리더십이 중요하다. 정책결정자의 국제정치에 대한 인식, 정책적 의지와 일관성, 외교에 대한 이해와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 또한 이를 뒷받침할



조윤영 교수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美 오클라호마주립大와 아메리칸大에서 정치학 석사와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은 조윤영 교수는 現 한국북방학회 회장 및 외교통상부·통일부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저서로는 ‘한국의 스마트파워외교전략(2009)’ ‘현대국제정치학과 한국(2007)’ ‘동아시아 공동체(2005)’ 등이 있다.

수 있는 외교안보 분야의 역량강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다. 글로벌 코리아를 지향하면서 강대국과의 외교 강화 추진, 북핵과 남북관계, 에너지 및 기여외교의 적극적 추진을 위해서 외교안보분야에 있어 인재와 제도의 확충도 절실하다. 전략적 리더십과 외교안보분야의 역량강화를 통해 주요 정책과제의 구체화와 실현이 변환의 국제정치시대의 외교안보전략의 모색이라고 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의 지속적인 선진외교를 통해 ‘성숙한 세계국가’로의 도약을 기대해 본다.

클래식 음악 애호가들을 위한
새로운 예술의 전당

Aula Simfonia Jakarta

- Indonesia's Finest Concert Hall

최근 자카르타시에 오픈한 Aula Simfonia Jakarta(the Symphony Concert Hall)로 인해 인도네시아는 새로운 음악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자카르타 꼬마요란 지역에 위치해 있는 Aula Simfonia Jakarta는 1천4백석이 넘는 좌석을 보유하고 있으며 좌석 어느 곳에서도 연주공연을 한 눈에 바라볼 수 있다.

홀은 솔로, 챔버, 기악, 합창단 및 교향악단 등 연주자들의 다양한 범위에 맞게 설계되었고 Steinway and Sons Concert Grand (CT) 피아노와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큰 파이프 오르간을 갖추고 있다.

15센티미터에서 4.9미터 길이에 이르는 3,217개의 다양한 파이프로 구성되어 있는 Cassavant 오프간은 그 무게가 10톤이 넘는다. 샌디에고의 파이프 오르간 큐레이터인 로버트 나이트 씨는 Aula Simfonia Jakarta의 오르간을 오르간 세계의 '롤스 로이스'라고 명명하기도 했다.

Aula Simfonia Jakarta를 디자인한 Stephen Tong 박사는 이 콘서트 홀이 국제적인 연주자들을 인자카르타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해 줄 것이라고 확신하며 "인도네시아는 이제 국제 오케스트라 연주자들을 초청해 관중들에게 체계 최고의 연주를 보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다"고 전했다.

또한 인도네시아에서 태어나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지휘자인 Jahja Ling 씨는 Aula Simfonia Jakarta를 세계 최고의 콘서트홀로서도 손색이 없다고 말하며 "미국의 클리브



Aula Simfonia Jakarta

Jl. Industri Blok B 14 Kav.1, Jakarta Pusat

안내: Ibu Grace 08777 100 2009,

021 2799 7878(Flexi)

*매 콘서트가 끝난 다음날 부터 티켓 판매 시작

랜드에서 450 번 이상의 콘서트를 지휘했고 또한 세계 각지의 많은 콘서트홀을 돌아봤지만 이곳 역시 세계최고의 콘서트 중 하나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소프라노 양 황 웨이는 콘서트 홀이 그녀의 요구 사항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처음 이곳에 도착해 콘서트 홀을 봤을 때 놀랄 수 밖에 없었다. 좋은 음향 소리와 내부의 자연적인 스타일의 고전적인 분위기가 아직도 여전히 친근하고 따뜻한 느낌을 준다"고 말했다.

Aula Simfonia Jakarta는 매달 수회의 클래식 연주회를 개최하고 있다. 우리 교민들의 적지 않은 수가 클래식 음악 애호가 이면서 전공자들도 적지 않기에 교민들의 문화생활을 즐기는 하나의 창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3월, 4월 공연 안내

» 3월 13일(토) 19:30

Children Concert: Mozart, Haydn, Beethoven & Others

Piano Recital

Jonathan Koe (piano)

Jakarta Oratorio Society & Others

Jakarta Simfonia Orchestra

Dr. Stephen Tong (conductor)

» 3월 20일(토) 20:00

Keluarga Panduan Angklung
Sman 3 Bandung

Konser Orkestrasi Angklung 8

Tapestry of Beauty

Presenting Maestros from

All Around the World

www.angklung3.info

» 4월 10일(토) 19:30

Piano Recital Chopin Piano Concerto No.1

Kevin (piano)

Jakarta Oratorio Society

Jakarta Simfonia Orchestra

Dr. Stephen Tong (conductor)

» 4월 17일(토) 19:30

Sanguinis Choralensis

Konser Musik Sakral

& Profan Abad 20&21

Batavia Madrigal Singers

Avip Priatna (conductor)



문화회관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한인사회의 문화활동에 작은 도움이 되고자 개관한 한인회 '문화회관'은 작지만 쾌적한 공간에 교민들께서 보내주신 양서들이 있고, 차 한잔의 여유를 음미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며, 한국과 인도네시아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시청각 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도서관]

우측 도서관 이용안내 참조

[휴게실]

TV시청, 신문, 잡지, 도서 열람 가능

[소규모 모임]

각 문화단체 및 세미나, 동우회 등 소규모 모임 장소대여 가능



한인회 도서관 이용안내

★ 이용 시간

- 월요일 ~ 금요일 :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 토요일 :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 이용 대상

한인회 회원증 소지자

(* 한인회원 가입은 한인회 사무국으로 문의하세요.)



★ 대여 방법

- 가. 회원증 사본 제출
- 나. 보증금 Rp.200.000 (요청 시 환불가능)
- 다. 대여 권수 및 기간
 - 도서 2권 / 기간 7일
- 라. 대여 기간 연장
 - 1회에 한하여 7일간 연기가 가능합니다
 - 전화 및 직접 방문
- 마. 반납 연체 및 분실 시
 - 연체일수 만큼 대출정지 또는 1일 1책당 Rp.1000 부과
 - 분실 시 실비 변상





제목은 토지법이라고 썼으나 인도네시아에서 토지법(Hukum Agraria)은 토지, 물, 공중까지 포함되는 수평 자연 및 수직 자연을 카버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며 한국의 토지 제도와 차이와는 많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는 건국 초기부터 토지 공유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헌법 제 33조에 토지와 물과 공중은 국가에서 장악하며 국민 복리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화란의 식민 통치 350년 간 토지 산물을 통한 수탈당한 뼈아픈 경험에서 토지 공유를 원칙적으로 하고 토지의 사유를 제한하여 조상 대대로 내려온 관습법을 중심으로 하여 1870년부터 발효한 화란 식민 통치 정부의 기존 토지법을 폐기시키고 토지에 관한 1960년 법률 제5호(“토지 기준법”)를 제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경제와 사회의 많은 변화로 인하여 50년 전에 제정한 현행 토지 기준법이 변화된 사회 및 경제 환경에 맞게 개정이 절실하게 되어 현재 토지 기준법 개정 준비가 진행 중이며 우리 한인 동포들의 관심사인 외국인에 대한 아파트 보유 허용 제도 개선도 토지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사항이다. 토지에 관련된 제반 법규를 설명한다.

1. 토지, 물 및 공중에 대한 권리는 국가의 절대적인 권리이다

- 1.1. 국가는 토지, 물 및 공중에 대한 목적, 용도, 보유 및 관리에 대한 결정 및 시행하는 권리를 보유한다.
- 1.2. 국가는 토지, 물 및 공중과 법적 주체(자연인 및 법인) 간의 법적인 관계를 결정하는 권리를 보유한다.
- 1.3. 국가는 법적 주체와 토지, 물 및 공중에 관한 법적인 행위 간의 법적 관계를 결정하는 권리를 보유한다.

* 토지법에서 뜻하는 국가는 중앙정부이며 토지, 물 및 공중에 관한 절대권이 중앙정부에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 정부에는 토지를 관할하는 부처가 없으며 지방에서 토지에 관한 사항을 관할하는 토지 사무소(Kantor Petanahan)는 지방 자치 정부 소속이 아니고 중앙정부 소속이며 중앙정부에 있는 토지원 (Badan Pertanahan Nasional/BPN)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2. 토지에 대한 주민의 전통적인 공동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다

산림 개발, 농장, 광산 개발, 양어장 등 많은 토지를 필요로 하는 사업장과 사업장이 있는 현지 원주민 간에 토지에 대한 권리 문제로 갈등이 적지 않은 토지에 대한 주민 공동 소유권은 실정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관습법 상의 주민 공동 소유권(Hak Ulayat)이다. 조상 때부터 마을 사람들이 이용해왔거나 벌어 먹어온 임야 등의 토지를 사업자가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로부터 해당 토지에

인도네시아 법률해설

대하여 사업허가를 받았을지라도 권리 행사를 하려면 주민들에게 정당한 배상을 해야 한다. 해당 토지에 대하여 토지에 대한 권리증기 증서가 없고 재산세 납부 실적이 없더라도 토지법은 주민 공동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다.

3. 토지의 사회적 기능을 강조하고 보유 면적을 제한하고 있다

- 3.1. 토지의 공익 기능을 강조하고 공익을 위한 토지 강제수용을 규정하고 있다. 3.2. 토지 보유 면적을 제한하고 있다. 자카르타의 경우 한 가족(직계 존비속 포함) 혹은 한 법인의 보유 면적을 최대 5,000m²로 제한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5,000 m² 이상 보유가 불가피한 가족 혹은 법인은 자카르타 주지사의 특별 허가를 얻어야 5,000 m² 이상 보유가 가능하다.
- 3.3. 법인의 토지에 대한 권리 보유는 허가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면적만큼만 허용하고 있다. 사업 허가서에 허가되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토지 면적을 명시하여 허가된 면적 이외의 토지 과다 보유를 금하고 있다.

4. 인도네시아 국민에게만 토지 소유권을 허용하고 있다

토지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법적인 주체 및 보유 목적에 따라 토지에 대한 권리 종류를 여러 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토지에 대한 권리 중 보유 기간 제한(시한)이 없는 소유권은 인도네시아 국민과 특수 공법인에게만 허용하고 있다.

5. 외국인의 토지에 대한 권리 보유를 제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임시 거주허가서/KITAS 이상 보유자) 및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허가 받은 고정 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 법인(회사, 단체, 외국 정부의 대표 기관인 대사관, 총영사관, 국제기구의 대표부 등)에게는 한시적인 토지의 대한 사용권만 허용하고 있다.



6. 토지에 대한 권리의 종류가 다양하다

토지에 대한 권리를 소유권, 경작권, 건축권, 사용권, 임차권, 개간권, 임산물 채취권 및 기타권으로 분류하여 토지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법적인 주체와 보유 목적에 따라 토지에 대한 권리를 다르게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토지에 대한 권리를 다양하게 주체에 따라 용도에 따라 세분하고 보유 토지 면적을 제한한 결과 토지에 대한 투기를 예방하고 있다. 한국이 인도네시아의 토지 제도를 도입하면 부동산 투기는 점차적으로 사라질 것으로 생각한다.

7. 물에 대한 권리는 물 사용권, 양어권 및 조어권이 있다

8. 공중에 대한 권리는 공중 사용권이 있다

9. 소유권(Hak Milik)

- 9.1. 소유권은 토지에 대한 권리의 시한이 없는 상속되는 권리이다.
- 9.2. 소유권은 인도네시아 국민과 법정 특수 공법인에게만 보유를 허용한다.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국민이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외국국적 취득일로부터 1(일)년 이내에 토지를 매각해야 한다. 법정 시한인 1(일)년 이내에 토지를 매각하지 않으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자동으로 소멸하며 토지는 국가의 소유가

된다. 외국인이 상속 혹은 결혼의 결과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 시에는 취득일로부터 1(일)년 이내에 토지를 매각해야 한다. 법정 시한인 1(일)년 이내에 토지를 매각하지 않으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자동으로 소멸하며 토지는 국가의 소유가 된다.

9.3. 이중 국적 보유자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할 수 없다. 이중 국적 보유자는 이중 국적 보유 시점으로부터 1(일)년 이내에 토지를 매각해야 한다. 법정 시한인 1(일)년 이내에 토지를 매각하지 않으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자동으로 소멸하며 토지는 국가의 소유가 된다.

9.5. 토지에 대한 소유권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담보 능력이 있다).

9.6. 소유권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소멸한다.

- 9.6.1. 공익 목적으로 수용된 경우
- 9.6.2. 소유권 보유자가 국가에 반납한 경우
- 9.6.3. 장기 방치한 경우
- 9.6.4. 상술한 “9.2.”항 혹은 “9.3”항에 해당되는 경우
- 9.6.5. 지진, 화산폭발, 해일, 홍수 등으로 인하여 토지가 유실된 경우

10. 경작권(Hak Guna Usaha)

토지 자체를 생산 수단으로 하는 농업, 어업 및 목축업에 필요로 하는 토지에 경작권을 허용한다.

10.1. 인도네시아 국민 혹은 인도네시아에 주소를 가진 인도네시아 법인에게만 경작권 보유를 허용한다.

10.2. 경작권을 받으려면 토지 면적이 최소 5(오) ha 이상이어야 하며 25(이십오) ha 인 경우에는 최신 기술을 이용하고 적정 규모의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개인 사업자에게 허용하는 경작권 면적은 최대 25(이십오) ha까지이며 법인 사업자에게 허용하는 면적은 중앙 토지원장이 정한다.

10.3. 경작권의 유효 기간은 최초 최장 35(삼십오)년, 연장 최장 25(이십오)년, 갱신 최장 35(삼십오)년이 가능하며 대규모 투자 시에는 최초 최장 35(삼십오)년과 연장 최장 25(이십오)년, 합쳐 최장 60(육십)년을 동시에 줄 수 있다.

10.4. 경작권은 자유롭게 매매, 교환, 출자, 증여 및 상속할 수 있으며 담보 능력이 있으며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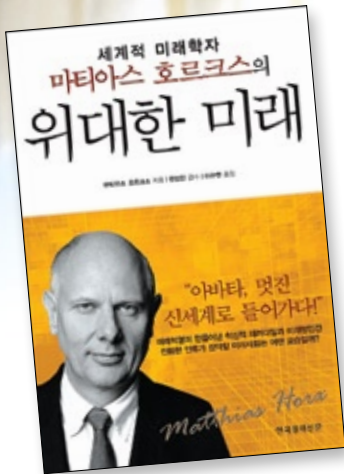
10.5. 경작권 보유자의 의무

- 10.5.1. 국가에 법정 의무금을 납부해야 한다.
- 10.5.2. 경작권 부여 결정서에 명시된 경작권 부여 목적에 맞는 농업, Plantation, 수산업 혹은 목축업을 해야 한다.
- 10.5.3. 관계 부처에서 정한 기준에 맞춰서 사업을 경작권 보유자가 직접 해야 한다.
- 10.5.4. 경작권이 부여된 토지에 사회 간접 자본 시설 및 환경 시설을 만들고 관리해야 한다.
- 10.5.6. 토지 비옥을 유지하고 자연 지원 파손을 예방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환경을 보전해야 한다.
- 10.5.7. 경작권 사용에 대하여 매년 말 서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10.5.8. 경작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국가에 반납해야 한다.
- 10.5.9. 경작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경작권 등기권리 증서를 발급기관인 토지원에 반납해야 한다.

10.6. 경작권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소멸한다.

- 10.6.1. 경작권의 시효가 경과가 한 경우
- 10.6.2. 법정 의무 사항 불이행 혹은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거 유권 기관에서 강제로 취소한 경우
- 10.6.3. 경작권 시한 만기 전에 경작권 보유자가 자진 반납한 경우
- 10.6.4. 공익 목적으로 수용된 경우
- 10.6.5. 경작권 취득 목적대로 토지를 사용하지 않고 장기 방치한 경우
- 10.6.6. 지진, 화산폭발, 해일, 홍수 등으로 인하여 토지가 유실된 경우
- 10.6.7. 경작권 보유자가 법정 보유 자격을 상실한 경우

* 경작권은 대규모 토지를 적법한 방법으로 확보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방법이다. 대규모 토지를 최초(35년), 연장(25년) 및 갱신(35년)하여 토탈 95년간 확보가 가능하다. (다음 호에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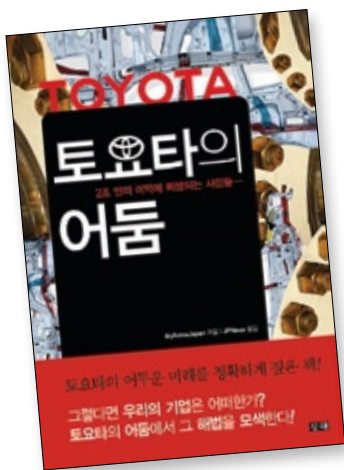


위대한 미래

저자 마티아스 호르크스 | 역자 이수연 | 감수 전상인 | 출판사 한국경제신문사

우리는 어떻게 위대한 미래를 만들어 가는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미래·트렌드 전문가이자 저널리스트 마티아스 호르크스가 전망하는 미래의 모습 『위대한 미래』. 인류의 역사 속에서 나타난 현상을 면밀히 분석해 세계의 경제, 정치, 종교, 전쟁은 물론 인류가 지닌 감성의 진화까지 예측하고 있다. 21세기에 너무나 다른 환경과 조건으로 세상에 태어난 알리아와 다비드. 상류층 거주 지역에 위치한 개인 산부인과 병원에서 태어나 사랑을 받고 자라는 다비드가 태어나던 바로 그 날, 아이가 태어난 곳으로부터 남쪽으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 에티오피아 동남부 고원지대에서 알리아가 태어난다. 이 책은 두 아이의 일대기를 통해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100년 후 미래를 전망한다.



토요타의 어둠

저자 MY NEWS JAPAN | 역자 JP NEWS | 출판사 창해

토요타의 어두운 미래로 보는 기업의 원점

2조 엔의 이익에 희생되는 사람들 『토요타의 어둠』. 200여 명의 토요타 현장 사람들을 직접 취재해 토요타의 가면 뒤 실체를 생생하게 드러낸 책이다. 월 144시간의 잔업을 요구하고, 번칙근무와 각종 제안제도 독촉을 통해 회사에 무조건 복종을 강요하는 글로벌 토요타의 어두운 그늘을 담았다. 토요타의 어두운 본 모습이 왜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는지, 토요타 사원들에 대한 불합리한 회사의 태도, 자동차 품질 저하로 '리콜왕'이라 불린 토요타자동차의 성능, 하청 회사들에 대한 차별과 폭압, 전 세계에 가해지는 토요타 본사 임원들의 횡포와 노조 탄압 등의 실상을 낱낱이 공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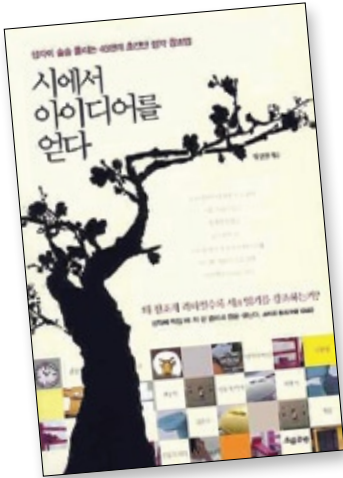


법은 밥이다 - 똑똑한 경제인을 위한 경제법률 지식사전

저자 장진영 | 출판사 끌레마

현명한 경제생활을 도와주는 알짜 법률용어 사전!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춘 경제법률 지식사전 『법은 밥이다』.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 노력해온 '소비자 대변인' 장진영 변호사가 경제생활에 꼭 필요한 법률용어 360개를 알기 쉽게 풀이한 책이다. 경제생활에 토대가 되는 주요 법률용어 150여 개를 표제어로 선정해 가나다순으로 배열하고, 표제어와 관련된 210여 개의 관련용어들을 하위에 배치해 법률체계와 용어를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했다. 간단한 내용증명에서부터 집단소송, 유산과 상속, 개인회생과 파산, 회사의 형태와 인수합병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경제생활을 아우르는 다양한 법률지식을 다루고 있다.



시에서 아이디어를 얻다 - 생각이 술술 풀리는 46편의 초간단 생각 창조법

저자 황인원 | 출판사 흐름출판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춘 경제법률 지식사전 『법은 밥이다』.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 노력해온 ‘소비자 대변인’ 장진영 변호사가 경제생활에 꼭 필요한 법률용어 360개를 알기 쉽게 풀이한 책이다. 경제생활에 토대가 되는 주요 법률용어 150여 개를 표제어로 선정해 가나다순으로 배열하고, 표제어와 관련된 210여 개의 관련용어들을 하위에 배치해 법률체계와 용어를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했다. 간단한 내용증명에서부터 집단소송, 유산과 상속, 개인회생과 파산, 회사의 형태와 인수합병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경제생활을 아우르는 다양한 법률지식을 다루고 있다.



거친 음식이 사람을 살린다

저자 이원종 | 출판사 왕의서재

농사짓는 교수, 이원종의 거친 음식 건강법 『거친 음식이 사람을 살린다』. 몸에 좋다는 음식이 넘쳐나는 요즘, 왜 현대인들의 건강은 오히려 나빠지는 것일까? ‘농사짓는 교수’로 우리들에게 잘 알려진 이원종은 고혈압, 당뇨, 심장병, 비만 등 현대인들의 가장 골칫거리인 질병들을 거친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치료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식습관 개선의 방법을 소개한다.

MBC 스페셜, KBS 생로병사의 비밀, SBS 건강 스페셜 및 각종 언론에 소개되며, 관심을 받은 이원종 박사는 거친 음식이 건강을 치유한다고 전하며 거친 음식의 범주와 의미, 거친 음식을 먹어야 하는 이유, 거친 음식을 이용한 실질적인 식습관 개선 방법을 소개한다. 각종 유기농 채소를 기르고 토종닭을 키우면서 우리의 몸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조화로운 식생활을 소개하는 이원종 교수가 전하는 건강법을 만나보자.



리큐에게 물어라

저자 야마모토 겐이치 | 역자 권영주 | 출판사 문학동네

천부적인 미적 감각과 재능으로 일본 다도의 틀을 세운 센 리큐의 베일에 가려진 삶을 파헤치며, 가려진 역사의 이면을 매혹적으로 되살려낸 『리큐에게 물어라』. 오늘날 가장 융성한 차 문화를 자랑하는 일본 다도의 족적을 되짚는 동시에, 전국시대를 배경으로 역사소설 특유의 낭만과 품격을 고스란히 담아낸 작품으로, 제140회 나오키 상을 수상하였다. 천부적인 미적 감각으로 일본 다도의 기풍을 세운 명인 센 리큐. 무서울 정도로 압도적인 재능, 한 치도 굽히지 않는 그의 성정은 결국 천하의 통치자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심기를 거스르기에 이른다. 그를 기다리는 것은 칼날 같은 죽음 뿐인데...

평행이론



누군가의 삶이 내게 반복되고 있다!

최연소 부장판사로 출세가도를 달리던 석현(지진희). 미모의 아내와 귀여운 딸까지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이지만 어느 날 그의 아내 '윤경'이 끔찍한 변사체로 발견되면서 혼란에 빠진다.

서울대 법대 수석졸업, 최연소 부장판사임명, 미모의 아내 살해까지... 자신이 한상준과 30년의 시차를 두고 날짜까지 똑같은 삶을 살고 있음을 알게 된 석현은 점차 평행이론을 확신하게 되고, 30년 전 한상준 사건을 파헤치기 시작한다.

16일 후, 나와 내 딸마저 죽는다!

하지만 누군가 30년 전 자료를 의도적으로 파괴하고 수사를 돕던 여 기자마저 목이 졸려 살해당한 채 발견된다. 실상가상 윤경 살해범으로 체포됐던 장수영마저 30년 전 범인과 같은 날 도주하는데...

'평행이론'대로라면, 16일 후 석현과 하나뿐인 딸마저 죽는다.

그는 '평행이론'에 숨겨진 비밀을 파헤치고, 예견된 결말을 바꿀 수 있을 것인가!

포스 카인드

이 영화는 FBI 조차 이유를 찾지 못한 알래스카 지방의 미스터리 실종사건을 재구성한 것이다!

40년 동안 흔적도 없이 사라진 1200명의 주민, 그때마다 FBI가 동원되지만 뚜렷한 이유를 찾지 못한다. 한편 환자들에게서 미스터리한 공통점을 발견하고 실체에 접근하기 위해 최면치료를 감행하던 타일러 박사(밀라 요보비치)는 자신의 환자가 경찰과 대치극을 벌이다 가족도 죽이고 자살해 버리는 최악의 사건을 겪게 된다. 경찰은 사고의 원인을 최면치료 때문이라 단정짓고 실험을 멈추길 강요하지만 그녀는 실험을 계속한다. 결국 딸마저 실종 당하자 그녀는 위험한 실체와의 접촉을 시도하는데...



● **주요기관**

한국대사관	520 1915
영사과	520 8950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574 1522
한국국제협력단	522 7771
코리아센터빌딩	525 6525

● **긴급전화**

경찰 (범죄 및 도난신고)	110
구급차	118,119
전기고장 및 문의	123
전화고장 및 문의	147
화재	113
수도고장및문의	5798 6555/577 2010
열차시간 문의	121

● **한인단체**

재인도네시아한인회	521 2515
한국 부인회	526 0878
반동 한인회	022 200 6880
발리 한인회	0361 286 248
보고르 한인회	7782 8886
수라바야 한인회	031 568 8690~1
수까부미 한인회	0266 736 441
스마랑 한인회	0298 522 296
메단 한인회	061 453 8669
족자 한인회	0274 376 741
바탐 한인회	0778 392 014
보고르 한인회	7782 886
빨렘방 한인회	00000000
한국국제부인회	0817 110 234
KOWIN	00000000

● **교민 잡지**

한인뉴스	521 2515
교민세계	739 9025
벼룩시장	8983 1908
한울	452 5655
여명	9955 5859

● **교육기관**

한국국제학교	844 4958~61
JIS	750 3640
NJIS	450 7660
BIS	745 1667
간디국제학교	690 9902
JIMS	744 4864

● **유치원**

사랑	835 1540
성모	7884 2467
하나	844 5283
리틀램 스쿨(자카르타)	723 0807
(골라빠가딩)	471 8047
(땅그랑)	558 7227

● **은행**

수출입 은행	525 7261
외환 은행	574 1030
우리 은행	515 1919
하나 은행	522 0120

● **종교 단체**

기독교	
늘푸른 교회	766 9191
동부 교회	4584 3458
연합 교회	720 5979
소망 교회	739 6487
순복음 교회	739 2373
안디옥 교회	765 3077
열린 교회	844 5537
위자야 한인교회	7279 3145
자카르타 사랑의 교회	420 9134
주님의 교회	831 3843
한마음 교회	720 8014
한인 성요셉 성당	7884 3782
(찌까랑 공소)	8911 7547

불교

조계종 능인정사	724 7261
조계종 해인사 인도네시아	729 0211
(동부자바포교원)	0818 333 491
법연종 법연원	720 8607
조계종 고려정사	724 3571

이슬람

한국이슬람 인니지회	871 6906
------------	----------

● **건강식품/건강원**

COCOON(일동제약인니지부)	520 7662
경동 건강원	7028 4262
고려 건강원	8779 8959
한국 건강원	5579 6411
황소 건강원	5576 7628
진영 삼봉냐와	8234 565
솔진생 코리아	7278 8287
클로렐라	470 4280
이름 황성주 생식	5296 1522

● **국제전화 서비스**

글로벌링	725 1606
넥스텔링크	525 3187
데이콤	720 7551
킵폰	574 0888
현대 텔레콤	5579 1226
Hallo Phone	5290 0233

● **꽃/화환**

꽃과 좋은날	0816 142 5099
난 이야기	0812 913 1355
에셀 꽃집	0816 733 810

● **노래방**

팡팡노래방 & 치킨	720 7275
Beat Box(골라빠가딩)	9773 4780

● **렌트카/기사클럽**

강남 렌트카	081 2109 7631
서울 렌트카	6870 9335
우리 렌트카	081 119 3069
한성 렌트카	889 0471
짱구 기사 클럽	7279 8233

자신을 허물고 부활을 꿈꾸는 이에게

여행은 혁명이다

소장/정연승

tel.021.521.2212
hp.081.888.5353
email.yunisarah@lycos.co.kr

마타하리여행사

www.doowang.net

DOOWANG과 함께 가면
먼 길도 가까워 집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나를 돌아봅니다.
고객은 나의 거울이요 진정한 스승이십니다.
한분 한분의 스승을 만나기 위해
나를 기다리고 고품과 고품과 고품을 다해 찾아뵙겠습니다.

- 변호사 이소왕 배상 -

DOOWANG

코리아센터 빌딩 4층(대사관 맞은편)
T 520-7153, 525-4523 F 521-2478 doowang@cbn.net.id

LIVING A&I
ARCHITECTURE & INTERIOR

terior
Creative Human Space

사무공간
주거공간
상업공간

Darmawangsa Square Citywalk 3rd Floor Unit 62-63
JL. Darmawangsa VI & XI, Jakarta Selatan 12160
Tel : 021-7278-0704 Fax : 021-7278-8330

항공권·호텔·관광·비자

로템과 함께하면
즐거움은 배가 됩니다



R RODEM TOUR

T: 4587-6030 F: 4587-8171 H: 0812-967-8131
E: rodem_tours@cbn.net.id
rodem_tour@hanmail.net

佳肴 Gahyo

佳肴는 1958년 부터 시작해온 양·대창
전문점으로 맛있는 안주라는 뜻입니다.

예약 : (021)5289-7044

Jl.Jend. Sudirman Kav.52-53 Lot.6 Jak-Sel

고객 만족을 위해 언제나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퓨릭 컨설팅 Since 2001
BUSINESS INVESTMENT & MANAGEMENT

- 회계 자문, 회계 감사, 세무 자문
- 투자, 창업 지원 서비스
- 각종 인허가 대형 서비스



Tel. (021) 5596 3213 / 5595 4666

● **미용실/피부관리**

갤러리 J	725	2856
국제 이용원	739	6129
뷰티 #	520	4428
스칼렛	723	5638
아마란스 화장품	723	1537
JR SALON	7279	7906
퀵덤	7279	2067~8
Kris Kim	7279	1555
Hair Perm	7280	1404

● **변호사 사무소**

이승민 법률사무소	525	5959
법무법인 P.Y.L	527	2422
P.A.K. 변호사 사무실	797	6254
이소왕 변호사 사무소	520	7153

● **부동산**

그린 부동산	726	4949
2005뉴 밀레니움	7082	0056
리츠 부동산	6896	7249

● **인테리어**

LIVING A & I	7278	0704
로만 인테리어	720	4851
KEMBAR REJEKI	527	2245

● **방송사**

K-TV	525	2922
OKTN(KBS World)	797	6151
KABLE VISION	527	8811
INDOVISION	581	9988

● **병원**

길명근 한의원	722	4646
뉴 월드 메디칼	7279	3809
대한 치과	721	1850
보청기센터(Hearing Vision)	7280	1819
실로암 한의원	720	1779
서울 메디칼 크리닉	799	1333
솔 한의원	7278	7410
신농씨 한방병원	7278	0563
아름다운 병원	720	7628
한국병원	720	7727
R.S. BUNDA	322	0005
R.S. GRAHA MEDIKA	530	0887
RS. MEDISTRA	521	0200
R.S. M.M.C	522	5201
R.S. PONDOK INDAH	765	7525
R.S. Siloam(땅그랑)	546	0055
R.S. Siloam(찌까랑)	8990	1911

● **비디오**

비디오 서울	723	2088
한양 비디오	450	4364
K-마트 비디오	688	22040

● **사진관**

ELGA 포토스튜디오	521	0862
-------------	-----	------

● **슈퍼마켓**

뉴서울슈퍼	725	0520
뉴부산슈퍼(땅그랑)	5940	0375

만나슈퍼(버까지)	821	8705
무궁화슈퍼	722	2214
무궁화(땅그랑)	558	2214
무궁화(골라빠가딩)	453	3624
무궁화(찌까랑)	7075	2214
서울마트(가라와찌)	546	0844
서울슈퍼(골라빠가딩)	450	4364
우리슈퍼(버까지)	8240	4575
월드마트	8430	2535
하나마트	8459	0064
한일마트	723	2086
한일마트(땅그랑)	5577	8633
G-마트(찌부부르)	8459	9858
K-마트	725	2122
위자야마트	726	9049

● **식당**

가나 레스토랑	252	0077
가야성	725	7373
가호(세노파티)	5289	7044
가호(골라빠가딩)	2850	7600
강강수월래	380	5217
강나루(땅그랑)	5576	8222
강촌(땅그랑)	5579	3681
경복궁(찌까랑)	8990	8822
고려가든(스마랑)	(024)321	992
고목(찌까랑)	897	3463
고인돌	452	5597
고주몽	7279	6709
국일관	822	8974
금수강산(찌까랑)	8983	3282
기소야	574	7581
뉴 코리아타워	3193	0311
뉴서울(땅그랑)	546	0845
다리아 분식	722	0276
대감집	726	4356
돌아온 김삿갓	722	2230
동해복집	720	7464
또래오래 치킨(버까지)	8243	4848
레드토마토 EX몰	315	1033
뽕독인다	7592	0654
마포	7279	2479
만나	821	5279
만리장성(땅그랑)	552	1210
명가면옥(땅그랑)	552	2745
모나리자(찌까랑)	8990	9570
물레방아	8990	6956
목우촌	450	4155
미르(맨하튼 호텔)	5296	1201
미추홀(선레이크호텔)	6583	1472
버까지 서울(버까지)	8895	7604
부산횃집(골라빠가딩)	4585	1156
산들(땅그랑)	5579	5821
산타코리아	722	9921
싼티카 클래식(버까지)	8459	9282
상록수	8983	6047
서동(찌부부르)	8459	9858
서라벌	572	3475
서울가든	(0361)768	323
서울 일식(땅그랑)	546	0845
서울 팔레스	(024) 447	414
소양강(찌까랑)	897	2231
송도(리보찌까랑)	8990	1474

수라청(세노파티)	527	8721
수라청(골라빠가딩)	4585	1115
스카이 코리아(공항)	550	9158
시티서울	5289	7506
신도시	897	3615
아랑 22	7082	0601
아랑갈비	8983	6047
아랑/스시 코리아	453	1679
아리랑(리뽀찌까랑)	8990	1662
아리아 분식	722	0276
아랑갈비(찌까랑)	8983	6047
아리랑(찌까랑)	8990	9917
이스타나 코리아	314	4501
어울림	551	4853
아마(땅그랑)	547	2722
어울(땅그랑)	551	4853
오장동 오스시	739	6229
우리들(땅그랑)	552	4047
울엄마	920	7244
원조식당(수까부미)	4585	1156
원치킨호프(땅그랑)	5577	6770
2002 레스토랑(땅그랑)	5940	4189
장터(골라빠가딩)	4585	4302
종가집	8990	6956
주막레스토랑(찌까랑)	8990	0514
카사블랑카	8241	4949
코리아 하우스(찌부부르)	844	4786
코리아 하우스(반둥) (022)203	1626	
코리아하우스 횡집	844	5877
타임(가라와찌)	5577	6324
태극관	822	7011
토담	521	0230
토박	725	1135
팔레스	5296	2001
천지루(찌까랑)	8990	1662
청기와	726	1924
청마루(골라빠가딩)	452	5597
청해수산	739	7032
초가(가라와찌)	552	6043
춘하추동	5940	2846
팡팡치킨	720	7275
하나레스토랑	4482	0081
하나마트 식당	8459	0064
하나비(리뽀찌까랑)	8990	6230
하나정(땅그랑)	5577	6457
하림각	551	8511
한강(Wolter Monginsidi)	7278	7802
한국관	720	7322
한민족	725	2688
한성관(골라빠가딩)	453	3033
한솔	5290	3417
한양가든	521	2522
한양가든(골라빠가딩)	450	2071
한우리(찌부부르)	8459	2871
할매손칼국수(골라빠가딩)	4585	3398
함지박	739	6958
향수	645	2378
해물촌	451	3761
해운대(땅그랑)	5577	8527
황소가든	8240	9670
황소가든 (0264)313	011	
Ah Yat 레스토랑	5705	333
Beat Box(골라빠가딩)	9773	4780

BBQ(골라빠가딩)	00000000
Esse MM2100	8998 1564
Lobster & King Crab	515 5060

● 신문

동아일보	720 6802
데일리 코리아	725 7447
조선일보	5290 7388
중앙일보	7590 8308
한국일보	769 1081
한나프레스	450 9107
일요신문	452 5655
타임 인도네시아	5028 4996
JAKARTA POST	530 0476

● 안경원

눈사랑안경원	9820 1493
시티안경원	726 5009

● 여행사

굿데이 투어	4586 0598
그린 관광	798 3322
Red Cap	5797 3397
Rodem Tour	4586 6415
마타하리 여행사	521 2212
부미관광	7279 0011
비자여행 Malaysia	603 9274 1780
솔로몬 투어	0813 1934 1000
싱가폴투어(비자)	574 2660
스카이 투어	391 1381
153 TOUR	5720 153
코리아 트래블	230 3116
코인 관광	720 7230
하나 관광	520 2450
호산여행사	691 3602
HAPPY TOUR	532 7970
Inko Batam(바뽀)	0778 462 500

● 인터넷

Net2Cyber	576 3490
S-Net	7080 7886
넥스텔링크	525 3187

Korean Traditional Grill

고주몽



7279-6709
Jl. Panglima Polim IX No.7-9 Jakarta Selatan

사무실 인테리어의 모든 것

여러분의 사무실은
로만인테리어가 책임지겠습니다.



OFFICE INTERIOR 전문업체
로만인테리어
HP. 0811-847-699
Tel: (021) 720-4851 Fax: (021) 726-0910
Jl. Laksana II No. 13, Blok S, Kebayoran Baru

아이니 갤러리
INI gallery



Telp. 021-5814690
021-98202086
0812 19285578
0817 113578

가구 furniture
Neo classic Antique, European, Italian, Baroque,
Modern & Minimalist, Italian's rich gold & white.

interior 인테리어
Home, Office, Apartment, Commercial, Villa,
Remodeling, Exhibition.



인도네시아가 보이는
리·얼·타·임·뉴·스

데일리코리아는 유료정보입니다.

구독문의

Tel 021-725-7447
HP 0813-1898-9897
dailykoreaindonesia@gmail.com

Little Lambs
International PreSchool

Senayan · 723 0807
Tangerang · 558 7227
Kelapa Gading · 471 8047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 **운송 해운 이삿짐**

센다이 이주화물	719	0247
아네카 트란스	520	4181
트란스 우파마	829	6218
CARGO PLAZA	831	7779
DHL	7919	6677
FIRSTA EXPRESS	525	1628
FNS	8998	2855
HAES IDOLA CARGO	8591	8488
HANINDO EXPRESS	252	5123
KORNET LOGISTICS	8379	3455
QCN	520	4189
Wings Global	4585	8053
ZIMMOAH	6531	1123

● **인테리어**

Living A & I	7278	0704
로만 인테리어	720	4851
아이니 갤러리	581	4690

● **자동차 정비소**

벵켈 코리아 모터스	885	4034
------------	-----	------

● **증권/보험**

동서 KOLIBINDO	526	1326
삼성 화재	520	5511
우리코린도 증권	797	6210
클레몽 종합금융	797	6363
한진코린도 보험	797	5959
E - TRADING	574	1442
LIG 손해보험	391	3101

● **컨설팅**

글로벌컨설팅	7280	0524
누비라컨설팅(리쁘찌까랑)	8990	0088
두왕컨설팅	520	7153
새천년컨설팅	5290	0040
우리컨설팅	7918	4239
컨설팅 21	799	6182
퓨릭컨설팅	5596	3213
한생컨설팅	5290	0670

● **컴퓨터, IT**

대인정보시스템	230	5533
레드망고(PC방)	4584	4186
리콤 컴퓨터	725	1606
멀티캡 컴퓨터	5579	0305
지텍컴퓨터	5696	7001
하나로정보통신	9260	0950
한비텔	8379	1144
www.indoweb.org		
Reading Revolution	722	0833

● **택시**

SILVER BIRD	798	1234
BLUE BIRD	794	1234
CITRA	781	7771

● **하숙집**

쉽터 하숙	726	8775
일박이일 하숙집	424	0953
교민 하숙	0816	163 5558
미니호텔 뽀독인다	0818	760 747

● **학원/교육업**

대교 인도네시아	5292	0911
다니엘 아카데미	722	0686
리앤리	725	5008
마인드케어 학습클리닉	546	4531
뮤직 아카데미	0815	1150 6664
박학천 논술	3342	7540
뽀독 인다 아카데미	7590	5773
에세드라 아트스쿨(리쁘찌까랑)	546	4531
예원	720	8783
인재서당	739	7153
종로 학원	7279	1020
토마토 미술	720	5194
피카소 어린이 미술학원	725	5757
하이스트 학원	720	2022
해동검도	522	7204
해보다 외국어학원	0888	843 0415

● **항공**

대한 항공 (시내)	521	2180
(공항)	550	2389
GARUDA (Call Center)	2351	9999
	0804	1807 807
싱가폴 항공	570	4411

● **호텔**

그랜드 멜리아	526	8080
만다린	314	1407
물리아	574	7777
상그릴라	570	7440
사이드 자야	570	4444
하야트	390	1234
크라운 플라자	526	8833
술탄	573	8011

● **환전**

그린 환전소	0815	1423 0114
골라빠가징	453	1166
사강 머니체인저	5290	0233
위나 머니체인저	7278	0929
두나스 신암	797	6105
참피온 머니체인저	4585	4779
환전	712	8556

● **골프샵**

교민 프로골프샵	5577	1006
따만사리 골프샵	546	0838
레네 세계골프	739	8312
삼호(구농뿌트리)	8686	0624
한양(골라빠가딩)	450	4364
EFC Golf	725	0057
혼마 플레이골프	344	2540
MFS 골프	725	0057
Play Golf	722	9587
월드	552	7434
Bridgestone Golf	7279	8123

● **골프교습**

Easy Golf	801	2048
골프투어&골프아카데미	392	178
골프투어 자카르타	7013	8166
심스 골프	570	3063
배준원 골프교실	781	7679

● 기타

꽃과 좋은날	0811 941 173
마음수련	722 1600
스폰지	7095 4771
아시아 진주	7278 8327
닥터큐(피부미용)	5696 7090

발리 (지역번호 0361)

● 여행사

PESONA TAMAN KENCANA	744 1525
PD TOUR	763 845
PENJOR TOUR	727 800
P.B.B	288 999
APA TOUR	241 341
TNB	773 5801
KORUS	744 7200
MARIN TOUR	224 010
VIP TOUR	762 090
SUDINA BALI	744 2121
MATAHARI KORIN	757 474
CAKRAWALA TOUR	727 242
B,J,C TOUR	284 365
M TOUR	725 800
SATYA TOUR	283 305
RED CAP	754 4418
스피릿투어	234 825
Varia Tour	860 4977
Korea Travel	756 899
대한항공지점	244 988

● 식당

A One Seoul Garden	768 323
hanil rest	727 250
Seoul Garden (0362)	292 20
청기와	287 503
꼬끼레스토랑	287 503
발리인터넷셔널 라운지	759 368
Ajengan Korean FOOD	263 793
Grill House Restaurant	752 755
BUGA RESTAURANT	286 909

● 서비스업

— 마사지

아이시스마사지	287 503
INKO MASSAGE	789 2000
MASSO MASSAGE	725 475

— 빌라, 호텔

드림랜드빌라	708 199
라벤더 호텔 앤 스파	752 961
BEVERLY HILLS	789 2000
OCEAN BLUE BALI villa	776 700
Arirang Hotel (0363)	417 95

— 기타 서비스업

INT	720 999
HAN STAR	729 099
BALI ZIGI.COM	745 4229
시나르무띠아라(진주)	462 061
선주얼리진주가게	761 539
발리데와따	285 501

CLEAN/GREEN	289 070
환타지가라오케	282 828
뜨게아궁	298 643
공항(플로)	759 368
BALI CHIPPENDALE FURNITURE	812 570
익투스	815 310
Bali Cable Com	705 266
B.T.I	284 362
DEDO RAYA UTAMA	720 452
G.B.I 발론기구	704 333
LAPAMA 레프팅	288 507

반둥 (지역번호 022)

명가 레스토랑	200 7363
코리안 하우스	203 1626
한국관	7081 9529
한국가든	203 3473



3월 공지 사항

해외진출 우리기업 대상 신종 전화사기 주의 당부

- 최근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우리기업을 대상으로 전화를 걸어 뇌물을 요구하는 신종 전화사기가 빈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 사기조직들은 자국 진출 외국업체들을 표적으로 투자청 등으로부터 업종, 임원성명 등 구체적인 회사 관련자료를 입수한 후
 - 자신을 주지사 비서실장 등으로 소개한 후 주지사가 은밀히 통화하고 싶어한다며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통화를 시도하면
 - ‘개인적으로 긴급히 급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에 도움을 준다면 회사업무에 도움을 주겠다’ 등 갖가지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면서 계좌번호를 통보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기업 대상 전화사기는 현지 우리기업 진출 증가에 편승한 것으로 향후 유사사례가 지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 뇌물 성격의 금전을 요구 받을 때는 일단 전화사기로 의심하시고 우리 공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인회 무료 법률상담 안내

시간: 매주 목요일 오후 3시-4시(1시간)

장소: 한인문화회관 1층 상담실

Jl. Jend. Gatot Subroto No. 58, Jakarta Selatan

상담방법: 대면 및 통화

상담범위: 기업법무, 투자컨설팅, M&A, 부동산, 저작권, 자원개발, 채권회수, 파산관재인, 가사, 상속, 지적재산권, 소송, 중재, 재단법인, 출입국관리법 등 법률문제 전반

상담자: 이승민 변호사, 변리사, 파산관재인(한인회 자문변호사)
MP. 0816-1911245 / Tel. 021) 529-60643
yisngmin@centrin.net.id

대사관, 법률자문서비스 실시

1. 대사관은 우리 기업의 인도네시아 투자 진출 및 안정적인 영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률자문서비스센터를 설치 하였습니다.

○ 자문 내용:

- 인도네시아의 투자관련 법령, 제도
- 인도네시아 상법, 노동법 등 기업 영업 관련 법률 문제

2. 상기 센터 이용을 희망하시는 분은 당관 김호일 조사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전화: 021)520-1915 / 핸드폰: 0811-183-3164

E-mail: jkt_kimhoil@msn.com

한인회 특별활동 및 강좌 안내

< 인도네시아어 강좌 >

강의시간: 매주 화/금요일, 10:00~12:00

강의실: 한인회 2층

지도강사: 안선근 교수

연락처: 521-2515 / 0816-1883-224

< 인도네시아 문화탐방 >

자카르타 소재 40여개의 박물관과 30여곳의 유적지, 갤러리, 레스토랑 탐방과 전시회 등을 관람.

탐방리더: 사공경, 신유희

연락처: 사공경 (0816 190 9976),

신유희 (0818-708-228)

< 월화차회 >

모임 일정: 매주 화/목요일, 10:00

강의실: 한인회 강당 1층

연락처: 720-4211, 0818-491-325

< 한국어 강좌 >

강좌시간: 매주 토요일, 09:00~13:00

대상: 한국인업체 인니종업원 및 인니인

강의실: 한인회 2층

연락처: 521-2515 / 0815-1177-1899

대한항공 서울행 추가운항 안내

2010.2.9일 부터 대한항공에서 서울행 추가편(가루다 항공기 이용)을 운항합니다. Garuda Indonesia 와 공동 운항하는 추가편으로, Garuda 항공편을 이용하면서 대한항공의 예약/발권 서비스는 그대로 받으실 수 있어 더욱 편리한 스케줄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대한항공을 통해 Garuda 항공 운항편을 예약한 고객분께서는 공항의 Garuda 항공 카운터에서 수속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현 정기 운항편 (대한항공 운항)

편명	운항일	운항기간		기종	출발		도착	
KE 628	매일	09.10.25	2010.3.27	772	자카르타	21:55	서울	06:45*1
KE 627	매일	09.10.25	2010.3.27	772	서울	15:25	자카르타	20:30

추가 운항편 (Garuda Indonesia 항공 운항)

편명	운항일	운항기간		기종	출발		도착	
KE 5628	화,금,일	2010.2.8	2010.3.27	332	자카르타	23:25	서울	08:30*1
KE 5627	월,수,토	2010.2.8	2010.3.27	332	서울	10:35	자카르타	15:30

회사 경영을 위한 회계 강좌 안내

인니의 대기업에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 운영에 관한 세법, 경리 및 자금관리에 관한 강의를 아래와 같이 개설합니다. 희망하시는 분은 연락 바랍니다.

1. 수강기간: 2010년 3월 하순부터 3개월간
2. 모집인원: 5명 선착순
3. 수강시간: 총 40시간
4. 강의 교재: 강사료에 포함
5. 수강료: USD 500(3개월분)
6. 수강장소: Korea Center
7. 연락처: 0811-956-227
8. 강사: 한태기 (Evergreen Consulting 대표)

대한항공 하계운항 안내

2010.3.28일 부터 변경되는 대한항공 서울행 항공편 스케줄 안내입니다. Garuda Indonesia 와의 공동 운항편도 대한항공의 예약/발권 서비스는 그대로 받으시면서 계속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카르타 - 서울]

편명	운항일	운항기간	기종	출발		도착	
KE628	매일	2010.3.28~2010.10.3	777	자카르타	22:05	서울	07:05*1
KE627	매일	2010.3.28~2010.10.3	777	서울	15:45	자카르타	20:35

※ Garuda 항공기 이용

편명	운항일	운항기간	기종	출발		도착	
KE5628	화수금토일	2010.3.28~2010.10.3	332	자카르타	22:25	서울	08:30*1
KE5627	월수목토일	2010.3.29~2010.10.3	332	서울	10:35	자카르타	15:25

[덴파사르 - 서울]

편명	운항일	운항기간	기종	출발		도착	
KE630	일	2010.3.28~2010.3.28	A333	덴파사르	01:25	서울	09:20
	월,일	2010.3.29~2010.10.25	A333	덴파사르	02:20	서울	10:25
	화수목금토	2010.3.30~2010.10.30	A333	덴파사르	01:20	서울	09:25
KE629	토,일	2010.3.28~2010.10.30	A333	서울	19:05	덴파사르	01:05*1
	월화수목금	2010.3.29~2010.10.29	A333	서울	18:05	덴파사르	00:05*1

※ Garuda 항공기 이용

편명	운항일	운항기간	기종	출발		도착	
KE5628	화,금,일	2010.3.30~2010.10.29	333	덴파사르	00:30	서울	08:30
KE5627	화,금,일	2010.3.30~2010.10.29	333	서울	10:35	덴파사르	16:20

S 아시아 진주 Asia pearls

18년간의 신용과 정직을 바탕으로
고객님께 행복을 드리는
아시아진주가 되겠습니다.



- ◆ 정품 진주 전품목 수출 및 도매(한국매달가능)
- ◆ 최상품 다이아(GIA) 판매 - 90% 환매 보장
- ◆ 모든 셋팅물 새로운 디자인으로 재가공 가능

갤러리(워자아센터 옆)

Darmawangsa Square - City Walk Lt.1 No.28
Jl. Darmawangsa VI & IX Kebayoran Baru JKT-SEL
Tel. 021-7278-8327 HP. 0888-110-2022

본점(수출/무역)

Tel. 021-725-8857
HP. 0816-873-176 / 0816-1390-333

한인뉴스 이메일

haninnews123@gmail.com

홈페이지

www.innekorean.or.id

한인뉴스 독자 여러분!

재인도네시아 한인회에서 매일 발행되는 ‘한인뉴스’는 광고협찬사를 비롯, 한인회 임원사, 운영위원장 등 100여社로 송달되고 한국계 은행과 병원, 교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여행사 및 식당, 슈퍼마켓, 호텔 등에 일정 정도가 배포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뉴질랜드, 중국, 일본, 미국, 스리랑카, 홍콩, 싱가포르, 칠레, 말레이시아 등 해외 지역 한인회와 인도네시아 지방한인회인 동부자바한인회, 반둥한인회, 족자카르타한인회, 스마랑한인회, 메단한인회 등으로도 상당부수의 ‘한인뉴스’를 우편배달하고 있습니다

‘한인뉴스’에 기고를 원하시는 회사나, 단체, 개인은 언제든지 한인뉴스에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뉴스’는 명실공히 한인회원 모두가 참여하는 매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깨끗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위하여
KIDECO는 여러분과 함께 초록세상을 가꾸겠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에너지 자원회사

PT. KIDECO JAYA AGUNG

Travel Services with

Korean Touch!

GO! 패키지 특선

“Garuda항공티켓 + 호텔숙박”

GO! to Korea

Free & Easy Seoul

그랜드 앰버서더, 노보텔(강남,독산), 이비스(명동,강남), 베스트웨스턴 서울가든호텔

Health Care Seoul

(Health Care Seoul + 종합건강검진)

이비스 강남 + 건국대학교 명품헬스케어센터



GO! to Indonesia

Jakarta Business Package 65만원 부터

리츠칼튼, 몰리아, JW 메리어트, 그랑멜리아, 크라운 플라자, 아스톤 마리나

Family Package 5박7일 75만원 부터

- 고대의 도시로: 족자 2박3일 여행 + 자카르타 친지방문 3박4일
- 축제의 섬으로: 발리 2박3일 여행 + 자카르타 친지방문 3박4일

Air Ticketing

Hotel Reservation

Overseas & Domestic Travel

Tailor-made Corporate Travel



국제선 · 국내선 항공티켓



해외 여행 패키지

왕복항공권/호텔 및 리조트/공항 및 여행지 이동차량/ 가이드/식사 포함



Garuda Orient Holidays

Operated by BPW SATRIAVI

Tel. (021) 7278-0856/9 Fax. (021) 7278-8375
michelle@garudaholidays.kr / www.garudaholidays.kr
Unit 55 3rd Fl. Dharmawangsa Square Citywalk,
Jl. Darmawangsa VI & XI, Kebayoran Baru Jakarta Selatan